

연구총서 2002-09

•

김정일 현지지도의 특성

이 교 덕

통 일 연 구 원

요 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현지도는 다른 국가에서도 관찰되는 국정 최고책임자의 현장시찰에 비해 독특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 점에서 북한의 현지도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북한의 정책적 내용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최고지도자의 활동궤적과 통치스타일, 관심사항 등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선중앙년감』에 수록되어 있는 김정일의 현지도 내역을 여러 변수로 분류하여 현지도 횡수의 변화를 추적하고 그 변화의 원인을 설명함으로써 김정일 현지도의 전체적인 특징을 추출하고자 했다.

1. 현지도의 목적

‘현지도’라 하면 일반적으로 현장에 직접 내려가 행하는 김일성과 김정일 특유의 정책지도 활동을 연상하지만 현지도가 그들의 정책지도 활동만을 뜻하는 고유명사적 성격의 용어는 아니다.

원래 현지도는 글자 그대로 탁상행정을 배격하고 관계자가 직접 현지에 가서 사업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지도의 주체가 김일성과 김정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도라고 하면 김일성과 김정일의 활동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현지도가 수령의 영도를 이상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용어 자체가 신성시된 때문이다.

현지도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구체적 현실과 인민의 지향을 반영한 정책과 방침들을 구상하고 작성하기 위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다. 이는 당관료

와 기관간부들의 주관주의나 관료주의를 척결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당의 노선과 정책을 대중들에게 이해시켜 그들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에서 창조력과 자각적 열성을 적극적으로 발휘하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현지도는 대중운동인 ‘천리마작업반운동’,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등의 전개와 ‘평양속도’ ‘비날론속도’ ‘강선속도’ 등과 같은 ‘속도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셋째, 한 단위에 대한 구체적 지도를 통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절박한 문제를 푸는 본보기를 창조하고 이를 일반화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이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는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 등은 모두 이러한 모범화의 구체적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현지도의 직접적 목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부수적 효과로서 현지도를 통해 ‘아버이 수령’이라는 이미지 강화와 수령의 절대적 능력을 정당화시키는 데 있다. 열악한 도로조건이나 교통수단에도 불구하고 방방곡곡을 찾아 지도한다는 것은 “인민의 생활을 친아버이 심정으로 보살피시는 자애롭고 영명하신 인민의 수령”임을 증명하는 좋은 근거이다. 따라서 현지도는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시고 언제나 ‘인민행 열차’를 멈춤이 없이 인민들 속으로 들어가시는 숭고한 품모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선전되며 수령은 ‘인민에 대한 사랑의 최고 화신’으로 찬양된다.

2. 시기별 김정일 현지도의 특징

가. 전체시기(1945~2001)

북한은 2002년 2월 8일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1945년 이후 김정일의 현지도 내역을 상세히 보도했다. 북한의 방송이 주장하는

김정일의 현지도 내역을 그가 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들어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 그 이후 김일성이 사망하기 이전, 김일성 사망 이후의 세 가지 시기로 나누고 한 해에 김정일이 어느 정도 현지도하는가를 알기 위해 시기별 연평균을 산출하면, 김정일의 현지도는 김일성 사망 이전보다 김일성 사망 이후 단위수에서는 11.4%, 현지도 일수에서는 24.2% 감소했다.

지도대상이 된 1개 단위당 체류일수도 0.51일에서 사망 이후의 0.44일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김일성 사망 이전의 현지도에는 김일성의 현지도를 수행한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일의 현지도가 전체적으로 위축되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오히려 현지도를 위해 다닌 거리는 김일성 생존 때보다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김정일이 현지도를 위해 활발히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정일은 1945년부터 2001년까지 한 해 평균 206개소를, 평균 3.5일에 한 차례 현지도에 나섰는데, 이 때 약 71km를 다닌 것으로 나타난다.

분야면에서 보면 현지도가 1994년 이전에는 주로 문화·예술분야에 치중되어 있었으나 김일성 사망 이후에는 군사부문에 대한 현지도가 62.6%를 차지하고 있다.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의 현지도 거리가 크게 늘어난 것은 군사부문, 특히 평양에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군부대 시찰이 크게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김일성의 현지도와 비교해 보면 김일성은 생전 8,650여일 동안 578,000여km를 이동하며 총 20,600여개 기관을, 김정일은 577일 동안 116,694km를 이동하며 모두 1,300개 기관을 현지도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일성은 김정일에 비해 보다 많은 지역을 방문하여 비교적 활발한 현지도 활동을 했다. 김일성은 연평균 현지도한 단위수나

일수에서 김정일의 거의 2배에 이른다. 김일성은 평균 이틀에 한 차례 현지지도를 했으나 김정일은 4일에 한 번꼴이다.

둘째, 현지지도 단위당 체류시간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평균 0.42일과 0.44일로 대체로 비슷하지만, 한 단위를 현지지도하기 위해 이동한 거리는 김일성이 평균 28.1km로 김정일의 89.9km보다 훨씬 적다. 이는 김일성이 근거리 위주의 현지지도를 했음을 뜻한다.

셋째, 분야별로는 김일성이 경제·사회 등 비군사 분야 위주로 현지지도를 실시하였으나 김정일은 군사분야에 치중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김일성은 육·해·공군부대 3,120여개 단위를 방문하여 군사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15.1%이나, 김정일은 814개소를 방문하여 그 비율이 62.6%이다.

나. 1981년 이후(1981~2002)

김정일 현지지도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한 분석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시기는 그가 공식적인 후계자로 활동하기 시작한 1981년 이후이다. 김일성이 사망하기 이전 김정일의 독자적인 현지지도 횡수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1981년부터 1993년까지 13년동안 모두 70회로 1994년부터 2002년까지 9년간 총 302회의 1/4에 미치지 못한다. 이는 김정일이 제2인자이기는 하지만 1993년까지 김일성의 왕성한 현지지도를 주로 수행한 때문이다.

김정일의 현지지도는 1995년부터 차츰 늘어나 1998년 이후는 한 해 40회를 넘고 있다. 1998년에 현지지도 횡수가 다른 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1997년 10월 그가 총비서직에 취임하면서 명실공히 김정일시대가 시작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월별로 보았을 때 현지지도는 6, 10, 11월에 많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는 비교적 날씨가 좋아 움직이기 쉬운 때이기도 하거니와 당해년도 경제사업의 추진과 결산에서 의미있는 때이기도 하다. 사업의 결산과 현지도도 횡수 사이의 연관성은 분기별 현지도도 횡수의 증감을 살펴보면 좀더 확연히 드러난다.

분기별로 보았을 때 현지도도 횡수가 많은 때는 2/4분기와 4/4분기이다. 이 시기는 각각 상·하반기를 마감하는 때이므로 한 해의 사업성과를 높이도록 독려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다. 따라서 김정일은 그 해의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받으면서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문의 현장을 찾는 것으로 추측된다.

김일성 사망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월별 및 분기별 현지도도 횡수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다. 김일성 사망 이전, 즉 김정일이 공식 후계자로 활동하던 시기에는 4월, 그리고 무더운 7, 8월에 현지도도가 많았다. 이는 4월에 김일성 생일이 있는 것과 이 시기 현지도도한 단위가 더운 날씨에도 쉽게 찾을 수 있는 평양이나 평양 인근 지역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근거리의 현지도도가 대부분이었던 이 시기와는 대조적으로 이동거리가 길어지는 김일성 사망 이후 시기에 7, 8월의 현지도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김일성 사망 이후에는 10, 11, 12월의 현지도도가 크게 늘어난 것이 김일성 사망 이전 시기와 뚜렷히 다른 점이다.

안보상의 이유로 소재지를 밝히지 않는 군사부문에 대한 현지도도 장소를 제외하고 지역별로 보면 평양이 거의 절반으로 타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평양이 수도로서 모든 분야의 중심지이자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임을 감안하면 이런 결과는 매우 당연한 것이다. 여타 행정구역에 대한 현지도도의 횡수는 황해북도와 두 개의 직할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비슷하다.

김일성 사망 이후 시기만 보면 평안북도와 황해남도, 량강도, 자강

도, 강원도에 대한 현지도의 증가가 눈에 띈다. 평안북도는 기계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과 신의주를 중심으로 여러 분야의 경공업 단지를 갖춘 지역이기 때문이다. 황해남도의 경우는 토지정리사업과 구월산 유원지 건설장, 협동농장 등에 대한 현지도 때문에 횡수가 많아졌는데, 여기에는 군사분계선이 있는 지역이라서 군부대방문을 겸해 김정일이 자주 찾은 때문으로 생각된다. 량강도와 자강도, 강원도에 대한 현지도의 증가는 전력생산을 위한 중소형발전소의 건설을 독려하는 동시에 량강도의 경우는 대홍단군 사업의 추진, 자강도는 ‘강계정신’의 구현, 강원도는 토지정리사업 및 군부대방문과 연계된 때문인 듯하다.

내용으로 보면 대부분이 군사와 경제부문에 대한 현지도이다. 현재 김정일정권의 목표는 사회주의체제 유지와 경제발전인데, 체제유지의 관건은 군사력 강화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 현지도의 양대 축은 경제부문과 군사부문에 대한 것이다.

3. 군사부문 현지도의 특징

김정일이 전투부대를 찾아 전력증강과 관련된 지침을 하달한 현지도는 1995년 이후 뚜렷이 증가했다. 1995년 이후 군사부문에 대한 현지도가 급증한 것은 물론 ‘선군정치’ 탓이다. 김정일은 1995년 1월 1일 제214부대를 방문했는데, 이를 복한은 ‘선군정치’의 효시로 선전하고 있다.

김정일의 군부대 방문은 2000년에만 다소 비율이 떨어졌을 뿐, 김정일은 현지도의 거의 반 이상을, 그리고 현지도의 절대수가 적었던 1995년을 제외하고 6년동안 한 해 평균 20회를 군부대를 찾아 전력향상을 독려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

월별로 보면 1, 7, 8, 9월의 현지도가 상대적으로 적고 나머지 달은 거의 고르다. 이는 군부대 방문이 대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특정한 기념일과 크게 관련되어 있지 않음을 뜻한다.

‘선군정치’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1월 1일 군부대를 방문한 것은 1995년, 1998년, 2001년이고 1996년에는 음력설에 제 963부대 여성중대를 시찰했다. 그리고 북한에서 최대명절이라는 ‘태양절’에 군부대를 방문한 것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이다.

1995년부터 해군부대는 매년 1회 이상씩 방문하였으며, 방문한 해군부대가 모두 달랐지만 제155부대와 제853부대는 두 번 찾았다. 공군부대의 경우 1995년, 1999년, 2000년에는 방문하지 않았다. 육군부대도 매년 보통 다른 부대를 시찰하지만 한 해에 두 번 방문한 부대도 있고 7년동안 세 차례 이상 시찰한 부대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제287, 507, 567, 597, 671, 757, 833, 834, 853, 969부대가 해당되며, 후자의 경우 제549부대는 3번, 제324부대와 제963부대는 4번 방문했는데, 제963부대는 1996년과 1999년에 각각 두 차례씩 방문한 것이 이채롭다.

군사부문에 대한 현지도 가운데 군부대방문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군사학교를 시찰한 것이다. 1996년 11월 차광수비행군관학교를 방문한 데 이어 김정일은 거의 해마다 육·해·공군 군사학교나 각종 병과학교를 찾아 군사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그는 제465부대와 제635부대처럼 그 해에 새로 ‘오중흡7연대’ 칭호를 받은 부대를 방문, 치하하고 있으며 여성부대를 찾아 격려하는 일이 잦다.

4. 경제부문 현지도의 특징

군사부문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경제부문에 대한 현지도이다. 김정일은 1981년 이후 김일성과는 별도로 각 지역을 돌면서 공업부문에 대한 현지도를 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공업부문에 대한 현지도는 예외적인 것이었다. 김일성 사망 이전 경제부문에 대한 지도는 거의 김일성에 의해 수행되고 있었고 경제부문과 관련한 김정일의 현지도는 일부의 경공업부문과 건설사업 등에 국한되어 있었다. 더욱이 경공업부문에 대한 김정일의 현지도는 1991년부터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공업부문에 대한 김정일의 현지도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1월 16일에서 21일까지 자강도를 방문해 여러 공장과 기업소를 시찰한 때이다.

경제부문에 대한 김정일의 본격적인 현지도는 1997년 10월 김정일이 당총비서에 취임한 후인 1998년 1월 자강도에 대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1998년 9월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되어 명실상부한 최고지도자가 된 이후인 1999년부터 더욱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부문에 대한 현지도 횟수는 1998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2001년에 약간 추축한 이후 2002년부터 다시 증가추세를 보인다.

한편 현지도를 가장 많이 한 단위는 공장과 기업소이다. 이는 공업부문에 대한 현지도를 뜻하는 것으로, 그 함의는 북한경제의 회생에서 공업부문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장·기업소 다음으로 김정일이 많이 찾는 곳은 발전소이다. 공업발전의 선행조건이 전력생산에 있음을 감안하여 공장·기업소·발전소 방문을 같은 범주로 본다면 전체의 절반에 가깝다.

공업발전과 연관된 것이지만 북한정권이 당면한 과제중의 하나는 먹는 문제의 해결이다. 그래서 북한은 “전국이 달라붙어 농사를 지음으로써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고 먹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먹는 문제의 해결과 직결되어 있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에 대한 현지도의 횡수는 63회에 이른다. 공장·기업소에 대한 현지도에는 식료가공공장에 대한 현지도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모두 합친다면 첫 순위를 차지하게 된다. 그만큼 김정일이 먹는 문제의 해결에 신경을 쓰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경제부문에 대한 연도별 현지도 횡수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현지도 단위가 1999년부터 다양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토지정리사업이 시작되면서 농장에 대한 현지도가 크게 증가했고 각종 목장과 양어장으로 현지도가 확대되었다. 이는 먹는 문제의 해결이 보다 구조적이고 다양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 목 차 -

I. 서론	1
II. 현지도의 성격과 목적	8
1. 현지도의 성격	8
2. 현지도의 목적	18
III. 시기별 김정일 현지도의 특징	25
1. 전체시기(1945~2001)	25
2. 1981년 이후(1981~2002)	29
IV. 부문별 김정일 현지도의 특징	38
1. 군사부문	38
2. 경제부문	54
VI. 결 론	65
참고문헌	69
부록	75

- 표 목 차 -

<표 1> 시기별 현지도 내역	26
<표 2> 연평균 현지도 내역	26
<표 3> 김일성·김정일의 현지도 내역 비교	28
<표 4> 김일성·김정일의 분야별 현지도 비교	28
<표 5> 연도별 현지도 횡수	30
<표 6> 월별·분기별 현지도 횡수	33
<표 7> 김일성 사망 이전 및 이후 월별·분기별 현지도 횡수	34
<표 8> 지역별 현지도 횡수	35
<표 9> 군부대방문 횡수	39
<표 10> 군부대투입 건설장 현지도 내역	49
<표 11> 월별 군부대방문 횡수	52
<표 12> 연도별 경제부문 현지도 횡수	56
<표 13> 경제부문 연도별·단위별 현지도 횡수	57
<표 14> 일괄 현지도 단위	59
<표 15> 북한의 경제전략	62

I. 서론

북한은 “정력적인 현지지도로 천만군민을 불러 일으키시여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양양을 일으켜 나가시는 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독특한 령도방식”이라고 찬양한다.¹⁾

현지지도가 독특한 영도방식이라고 주장하지만 최고지도자의 현지시찰은 국가정책의 집행을 현장에서 점검하는 중요한 통치행위의 하나로서 어느 국가에서든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북한 최고지도자의 현지지도가 다른 국가에서의 그것에 비해 독특한 측면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산악지대가 80%를 차지하는 험준한 지형적 특성과 도로포장율이 8%에 불과한 실정에²⁾ 비추어 최고지도자가 현장을 찾는 일이 많은 것도 특이할 뿐 아니라 현지지도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지닌 정책지도 활동으로서 제도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북한의 최고권력자들은 현지 지도를 통해 각 분야의 정책집행 실태를 이해하고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포착함으로써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해 왔다. 곧 현지 지도를 통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분야의 사업을 새롭게 혁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이 제시”된다.³⁾ 또한 현지 지도, 특히 경제부문에 대한 지도는 부족한 노동력을 전략적 사업에 동원해 인민들의 생산을 독려할 뿐 아니라 당의 정책을 인민대중에게 설명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메카니즘으로 활용된다.

1)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빛나게 관철하여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로동신문』, 2002. 2. 20.

2) 연합뉴스 편, 『북한연감 2002』 (서울: 연합뉴스, 2001), p. 674.

3)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빛나게 관철하여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로동신문』, 2002. 2. 20.

2 김정일 현지도의 특성

이 점에서 현지도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북한의 정책적 내용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최고지도자의 활동궤적과 통치스타일, 관심사항 등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처럼 현지도가 연구대상으로서 일정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선행 연구는 그 수가 매우 적다.⁴⁾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어느 분야를 연구하든 공통적으로 겪게되는 어려움이지만 아마도 경험적 자료의 부족에 있을 것이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현지도 내역을 알 수 있는 북한의 공식 자료로는 몇 가지가 있다. 『로동신문』을 비롯한 언론매체, 『조선전사 년표 Ⅱ』⁵⁾, 『조선중앙년감』이 그것이다. 언론매체, 특히 방송은 현지도 사실을 대체로 다음 날 보도하지만 전부 보도하는 것은 아니다. 공식으로 보도되는 것보다 실제 현지도는 약 세 배 더 많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⁶⁾ 『조선전사』의 개정판과 함께 발간된 『조선전사 년표 Ⅱ』에는 1980년까지의 김정일의 현지도 내역이 실려있다. 『조선중앙년감』은 1982년판부터 매년 김정일의 현지도 내역을 ‘실무지

4) 현지도에 관한 연구는 유호열, “김일성 「현지도」 연구 : 1980-1990년대를 중심으로,” 『통일연구논총』, 제3권 1호, 1994; 서동만, “김정일의 경제지도에 관한 연구: 북한의 공식 문헌을 중심으로,” 『통일경제』, 1997년 11월호; 정창현, “현지도” 『통일경제』, 1997년 12월호; 고지수, “최고지도자의 정책지도법 ‘현지도’”, 『민족 21』, 2001년 6월호; 황재준, “북한의 현지도 연구 -특성과 기능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홍 민, “북한 현지도의 정치경제학적 기원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김상기, “김정일 경제부문 현지도 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01년 10월호; 이기동, “김정일 현지도에 관한 계량분석,” 통일부 편, 『신진연구자 연구논문 (Ⅳ)』 (서울: 통일부, 2002), pp. 211~247이 전부이다.

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전사 년표 Ⅱ』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1).

6) 정창현, “현지도,” p. 98.

도'라는 하나의 난으로 구성해 게재하기 시작했고⁷⁾ 1990년판부터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현지도도를 통합하여 한 개 난에서 기술해 왔다.

그런데 현지도도를 연구하는 데 있어 문제는 이러한 자료들에서 제시되는 현지도 내역이 서로 다른 경우가 발견될 뿐 아니라 우리의 통념으로는 현지도로 보기 어려운 것이 때로는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언론매체에는 보도되었으나 『조선전사 년표 II』에는 빠져있는 경우가 허다하고 같은 자료라 하더라도 현지도로 제시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종잡을 수 없는 때가 많다. 예를 들면 『조선중앙년감』은 현지도에 김정일의 예술공연 관람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1995년의 경우 김정일은 창당 50주년을 경축하여 진행된 집단체조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영광의 50년'을 10월 10일 관람하였으나 이것은 『조선중앙년감』의 현지도란에서 빠져있다. 반면 김정일이 오진우의 병문안을 한 것이나 그의 영결식에 참석한 것은 현지도로 제시되어 있다. 더욱이 1996년판 『조선중앙년감』에는 김정일이 각종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한 13건이 현지도에 포함되어 있다.⁸⁾

『조선중앙년감』의 경우 한 해에 김정일이 현지도한 내역은 앞부분의 현지도란과 마지막 부분의 김정일의 '혁명활동일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혁명활동일지'에는 들어있으나 현지도란에는 빠져있는 경우가 다수 있다.⁹⁾ 예컨대 김정일은

7) 『조선중앙년감』은 김일성의 현지도에 대해서도 그 이전에는 특별한 구분없이 한 해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을 설명하는 가운데 그 내역을 소개하였으나 1977년판부터는 현지도란을 별도로 신설하여 게재하기 시작했다.

8)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평양:조선중앙통신사, 1996), pp. 78~90.

9) 『조선중앙년감』의 끝부분에 나오는 김정일의 '혁명활동일지'에는 한 해 동안 김정일이 공개활동한 내용이 들어있다. 그가 각계에 축전·화환을 보낸 것이나 국내외인사를 접견한 사실 등이 날짜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4 김정일 현지지도의 특성

1999년 ‘태양절’을 맞아 진행된 해군사령부, 공군사령부, 제549부대, 제337부대의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였다고 『로동신문』이 5월 2일에 보도했고 이 사항은 1999년판 『조선중앙년감』내 김정일의 ‘혁명활동일지’에 나와 있으나 현지지도란에는 들어있지 않다.¹⁰⁾ 이러한 차이는 아마도 김정일이 공연관람 전후나 기념촬영 과정에서 예술 작품 창작이나 그 관련사업에서의 지침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의 유무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예술공연 관람은 현재까지도 꾸준히 현지지도로 제시되고 있으나 기념촬영은 2000년에 한 차례 현지지도로 제시된 것을 제외하면 더 이상 현지지도로 소개되지 않고 있다.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도 김정일은 한 해에 수십차례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강령적 지침’이 되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기념촬영이 현지지도에서 갑자기 빠진 이유를 짐작하기 어렵다.¹¹⁾

이와 같은 점 때문에 현지지도를 연구하려는 사람들은 출발점에서부터 연구대상으로 할 현지지도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하는 근원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즉 언론매체에 보도된 것을 전부 취급할

10)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99), pp. 43~81, p. 534 참조.

11) 1997년판 『조선중앙년감』은 예술공연 관람을 따로 빼지 않고 다른 사항들과 섞어 날짜순으로 게재해 오던 것을 바꾸어 공연관람과 기념촬영을 현지지도란의 제일 후반부에 따로 빼서 배치하였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97), pp. 46~74. 그러나 1998년판 『조선중앙년감』은 다시 1996년의 형식으로 되돌아가 현지지도 사항을 구분없이 날짜순으로 배치하였다. 1999년판 『조선중앙년감』의 경우는 공연관람을 다른 사항과 구분없이 날짜순으로 현지지도란에 게재하였으나 기념촬영은 삭제하였다. 그러나 2000년판 『조선중앙년감』에는 김정일이 군 중대장대회 참가자들을 접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한 것을 현지지도란에 포함시켜 혼란스럽다.

것인지, 아니면 특정 자료에서 제시된 것만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문제는 김정일의 현지도도 내역에 관해 상호 비교검증할 수 있는 북한 자료가 많다면 생기지 않을 것이지만 실제 자료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1981년부터 「조선중앙년감」에 김정일의 현지도로 게재되어 있는 사항을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김정일 현지도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¹²⁾ 언론매체의 보도를 감안하면 김정일의 현지도는 「조선중앙년감」에 게재되어 있는 것보다 더 많을 것이지만 그것을 일일이 추적하기도 어렵거니와 다행히 모든 내역을 추적·종합하여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지는 가치는 분석대상이 된 표본수가 많아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것 이외에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많은 현지도 가운데 북한 스스로가 특정의 것만 현지도로 제시하는 나름대로의 이 유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단, 본 연구는 「조선중앙년감」내의 현지도 가운데 예술공연 관람이나 기념촬영 등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것들은 김정일이 현지에 직접 내려가 관련사항을 파악하고 구체적 지시와 결정을 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한 현지도는 김정일이 특정한 곳을 방문하여 실태를 이해하고 지침을 내린 경우만을 의미한다.¹³⁾

12) 2001년판과 2002년판 「조선중앙년감」은 아직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2001년과 2002년의 현지도는 「조선인포뱅크」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김정일의 ‘최근 활동’에서 발췌했다. <http://www.korean.dprkorea.com/> 참조.

13) 북한이 「정치사건」이나 「력사사건」 등에서 현지도에 대해 특별히 설명하지 않는 것은 북한도 현지도를 우리의 통념상 이해되는 내용의 것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이 현지도를 특별한 내용의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에 관해 두 개의 사전에서 설명했을 것이다. 또한

6 김정일 현지지도의 특성

본 연구를 1981년부터의 시기로 제한한 것은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김정일이 공식 후계자로 지명된 것과 관련있다. 공식 후계자가 되기 전에도 김정일의 현지지도는 있었으나 그 대부분은 김일성의 현지지도를 수행한 것이다. 이를 연구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김정일 현지지도의 특징 파악이 오히려 어렵다. 물론 1980년 이전에도 현지지도할 단위를 선정하는 데 있어 실질적 제2인자인 김정일의 영향력이 작용하였겠지만 구체적인 단위의 선정이 전적으로 김정일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김일성을 수행한 것이 아닌 경우만 김정일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김일성이 현지지도한 단위를 피한다거나 역으로 김일성의 현지교시가 제대로 관철되고 있는지의 파악을 위해 김일성이 현지지도한 단위를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일 혼자만의 의지에 의해 현지지도할 단위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김정일의 의사가 일정한 부분 반영된 것임은 분명하다.

김정일이 같은 날 두 곳 이상을 시찰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조선중앙년감」은 하나의 현지지도로 처리한 때도 있고 분리하여 두 건의 현지지도로 처리한 때도 있다. 이를테면 1997년 6월 5일 김정일은 김정숙해군대학과 해군 제597부대를 방문했는데, 「조선중앙년감」은 이것을 하나의 현지지도로 게재한 반면, 1999년 4월 25일 김정일이 제690부대와 제946부대의 훈련을 참관한 뒤 제963부대를 시찰한 것은 두 번의 현지지도로 게재했다. 이러한 경우 본 연구는 「조선중앙년감」을 따라 전자는 1회, 후자는 2회의 현지지도로 취급한다.

북한은 2002년 8월 1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찾아주신 우리 조국은 선군의 기치밑에 끝없이 부강번영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로동신문」 사설에서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선군의 원리를 제시하시고 현지시찰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 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이라고 하여 ‘현지시찰’이라는 용어도 쓰고 있는데, 이것이 현지지도와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II. 현지지도의 성격과 목적

1. 현지지도의 성격

‘현지지도’라 하면 일반적으로 현장에 직접 내려가 행하는 김일성과 김정일 특유의 정책지도 활동을 연상하지만 현지지도가 그들의 정책지도 활동만을 뜻하는 고유명사적 성격의 용어는 아니다.

군지도일군들과 담화하여 보면 현지지도를 잘하지 않습니다. 군인 민위원장이 리에 내려가서 하루밤 자고 돌아오면 그것이 현지에서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라고 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리에 내려가면 적어도 2~3일씩 묵으면서 리당위원장이나 리인민위원장의 사업을 도와주며 당열성자들과 담화하며 리내 실정을 연구하고 구체적 대책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군들은 현지지도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리에 내려가면 회의에나 두어 시간 참가하고 나서 사업내용을 잘 알아보지도 않고 주관적 결론을 내립니다.¹⁴⁾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원래 현지지도는 글자 그대로 탁상행정을 배격하고 관계자가 직접 현지에 가서 사업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지지도의 주체가 김일성과 김정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¹⁵⁾

14) 김일성, “시, 군 인민위원회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시, 군 인민위원회 위원장 강습회에서 한 연설 1958년 8월 9일, 『김일성저작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419.

15) 북한의 사전에서도 현지지도가 “현지에 직접 내려가서 하는 지도”이며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대중지도방법의 하나”라고만 정의되어 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도라고 하면 김일성과 김정일의 활동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현지도가 수령의 영도를 이상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용어 자체가 신성시된 때문이다. 실제 북한은 현지도가 김일성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의 빛나는 구현”이자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적 령도예술을 보여주는 것”으로 찬양하고 있다.¹⁶⁾ 더욱이 현지도는 대중영도의 새로운 방식으로서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시절에 창시한 것이며 오직 그에 의해서만 창조되고 빛나게 구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¹⁷⁾

이 때문에 북한은 현지도라는 용어의 사용에 매우 신중하다. 그 단적인 예가 후계자시절 김정일의 정책지도 활동에 대해서는 ‘실무지도’라는 표현을 써 김일성의 현지도와 구별한 것이다. 이는 북한이 김일성 생전에 그의 리더십을 ‘유일령도체계’로, 김정일의 리더십을 ‘유일지도체계’로 구분했던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북한이 김정일의 정책지도활동에 ‘실무지도’라는 용어대신 ‘현지도’라는 표현을 쓴 것은 1988년 4월부터이다. 이 무렵 그의 공개활동을 지칭하는 표현이 실무지도에서 현지도로 바뀐 것은 국정 전반을 주도하게 된 그의 정치적 위상이 반영된 것이다.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가 현지도를 행하는 목적은 일차적으로 그것이 현장의 실태와 민심의 동향을 직접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생산현장의 근로자들을 직접 만나 격려함으로써 그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상하고 세심한 ‘인민

을 뿐이다.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대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954.

16) 편집국,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현지도방법을 따라 배우자,” 『근로자』, 1969년 제11호, p. 2, p. 5.

17) 『조선중앙통신』, 2002. 4. 13; 리근모,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지도방법은 공산주의적 령도방법의 위대한 모범,” 『근로자』, 1978년 제4호, p. 37.

적 지도자'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점도 현지지도의 동기로 작용한다. 즉 현지지도는 “인민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인민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피시는 자애롭고 영명하신 인민의 수령 김일성동지의 한없이 고매한 덕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선전되는 것이다.¹⁸⁾

북한 문헌 가운데 현지지도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은 발견할 수 없으나 현지지도는 북한이 주장하는 대중영도의 모든 원칙을 충실히 구현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대중영도의 원칙을 분석해 보면 그 성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도 북한은 현지지도가 “대중 지도에서 구현하여야 할 령도방법과 령도풍모를 전면적으로 담고있는 탁월한 사업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¹⁹⁾ 대중영도 원칙의 기본내용은 다음과 같다.²⁰⁾

첫째, 위가 아래를 도와주는 것이다. 김일성은 지도란 “어디까지나 아래일군들이 제 힘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에서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²¹⁾ 인민대중의 위에 군림하는 관료가 아니라 충족으로서 아래에 내려가 아랫사람들과 일군들을 일깨워주고 실속있게 도와주는 방법을 통해 당과 수령의 영도를 실현해야 한다고 교시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당과 국가기관 일군들이 직접 아래에 내려가 아래일군들과 군중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사업체계를 철저히

18) 편집국,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현지지도방법을 따라 배우자,” p. 5.

19) 리근모,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지지도 방법은 공산주의적 령도방법의 위대한 모범,” p. 34.

20) 사회과학출판사, 『령도예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81 ~ 160.

21) 김일성, “성, 관리국의 지도를 개선하며 공장 당위원회의 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황해제철소 당위원회에서 한 연설 1962년 8월 30일, 『김일성저작집 1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299.

세웠습니다. 중앙은 도를, 도는 군을 도와주며 특히 당과 국가의 말단 지도단위인 군기관일군들은 농촌의 기본생산단위로 된 리에 일상적으로 내려가 리일군들과 함께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직접 조직집행하면서 리사업을 책임적으로 도와주게 하였습니다.²²⁾

현지지도는 위로는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에서부터 아래로는 군기관 일군에 이르기까지 그 각각이 아래일군과 인민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사업체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실정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실정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아래의 실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 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토대위에서 가장 정확한 지도대책과 방침들을 제시한다는 뜻이다.

북한은 이것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려면 현지지도를 통해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야 하며 이렇게 할 때 대중지도에 있어 주관주의, 관료주의, 형식주의적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지난날 혁명투쟁을 하여 오던 우리가 건설사업을 하자고 하니 많은 문제들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풀자면 대중, 특히는 직접 생산하는 노동자, 농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에게서 배워야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자주 공장과 농촌에 나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과 의논합니다.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맑스-레닌주의당도 집권당이 되면 주관주의에 빠지고 관료주의를 범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것을 면하자면 군중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군중

22)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961년 9월 11일, 『김일성저작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272.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들과 모든 것을 의논하고 그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²³⁾

북한은 실정을 이해하는 모범을 김일성이 1960년 2월 청산리를 현 지도도할 때 보여주었다고 한다. 이 때 김일성은 크지 않은 리(里)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60여명에 달하는 관계자들과 직접 대화해 “협동농장의 생산형태와 관리운영 정형, 당조직들의 활동정형과 간부들의 사업정형 등 모든 문제를 환히 료해”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리당위원회와 관리위원회 사업에서 나타난 근본결함과 걸린 문제를 포착”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한 대책까지도 미리 구상”하였다고 한다.²⁴⁾

셋째,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것이다. 정치사업을 앞세운다는 것은 사람과의 사업을 의미하며 그 목적은 인민대중에게 당의 노선과 정책의 본질을 알기쉽게 해설해 주고 당이 그러한 노선과 정책을 수립한 이유, 실현하려는 목표, 정책달성을 위한 투쟁방법 등을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당정책을 관철하려는 의식과 각오를 가지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한다.

김일성은 당과 정부의 사업방식이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현지도를 일상화하는 데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대중과 떨어진 사무실적 사업작풍을 결정적으로 배격하고 생산현장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였으며 모든 지도사

23)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 일본 <요미우리신보>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담 1972년 1월 10일, 『김일성저작집 2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p. 23~24.

24) 편집국,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현지도방법을 따라 배우자,” p. 6.

업에서 군중의 정치적 각성을 높이며 그들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발양시키는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모든 사업을 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투쟁하였습니다.

당중앙위원회는 당과 정부의 책임적 간부들을 계통적으로 공장과 농촌에 보내어 근로자들에게 당정책을 해설침투시키며 그들과 직접 마주앉아 혁명과업수행에서 제기된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기 위한 대책을 탐구하는 현지도도를 정상적인 사업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²⁵⁾

넷째, 중심고리를 찾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는 것이다. 고리란 “일정한 연쇄의 체계를 이루고 있는 개별적인 사물현상”이고, 중심고리란 “련관된 고리들 가운데서 그 고리를 추켜들면 다른 고리들이 다 따라 일어서고 그 고리를 풀면 다른 고리들도 쉽게 풀 수 있는 고리”를 말한다.²⁶⁾

현지도도 중심고리에 집중되는데, 예컨대 김일성은 철생산과 농사에 모든 힘을 집중하기 위해 각각 1959년 8월 황해제철소와 1960년 2월 청산리를 현지도했다. 즉 현지도 과정에서 그 부문, 단위의 위치와 사명, 기본임무와 그 수행실태, 준비된 역량 등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중심고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것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것이다. 혁명과 건설의 매개 부문, 매개 단위의 사업에서 중심고리를 포착하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는 것은 마르크스-레닌 전략전술의 원칙이기도 하다.

다섯째, 모든 사업을 격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창조적으로 하는

25)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pp. 270~271.

26)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편,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687.

것이다. 이는 사업의 특성과 구체적인 환경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끊임없이 발전하며 그에 따라 투쟁과업과 사업환경과 조건도 부단히 변화하는” 혁명과 건설 과정에서 형식주의는 배격되어야 할 사업방식으로 비판된다.²⁷⁾

현지지도에서 강조되는 점은 격식화된 사업방식과 방법에 구애됨이 없이 자체의 실정에 맞는 형식과 방법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독창적으로 밀고 나가는 창의성의 발휘이다.

여섯째,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리는 것이다.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린다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목표부터 높이 내걸고 통이 크게 설계하며 일단 설정된 목표는 대담하게 판을 벌이고 진공적으로 패기있게 밀고나가 끝까지 수행해 나간다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²⁸⁾

북한은 이 방법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전진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며, 특히 사회주의 건설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한다는 것은 목표설정을 높게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적극성과 창조력, 온갖 물질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현지지도는 가용자원과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하기 위한 것이다.

일곱째,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결합하는 것이다. 북한은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결합해야만 당의 정책 및 노선이 인민대중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관철된다고 본다.

일반적 지도란 “제기된 혁명과업의 목적과 정치적 의의를 대중에게 침투시키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일반적인 대책을 세워주는 지도”이

27) 사회과학출판사, 『령도예술』, pp. 140~150.

28) 사회과학출판사, 『령도예술』, p. 151.

다. 반면 개별적 지도란 “제시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단위의 구체적 조건과 대중의 준비정도에 맞는 구체적인 실천대책을 세워주는 지도”를 말한다. 전자의 사명은 “대중을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시키고 그 관철을 위한 하나의 통일적인 투쟁으로 조직동원”하는 데 있고 후자의 사명은 “당의 로선과 정책이 철저히 관철되도록 매개 부문, 매개 단위에서 그 구체적 실정, 대중의 의식수준과 준비정도에 알맞는 투쟁방도를 세우고 면밀하게 짜고들어 지도”하는 데 있다고 한다.²⁹⁾

현지지도는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결합시키는 방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개별적 지도의 전형이다. 개별적 지도가 “현지에서 해당 단위의 구체적 조건과 실정에 맞게 사업을 직접 조직하여 주고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대책을 세워줌으로써 당의 로선과 정책이 철저히 관철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³⁰⁾

한편 현지지도는 그 형태에 따라 정기 현지지도, 수시 현지지도, 그리고 특별 현지지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³¹⁾

정기 현지지도는 매년 특정 도 또는 군을 대상으로 적게는 2~3일에서 많게는 약 15일 정도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다.³²⁾ 정기 현지지도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은 해당지역내의 여러 산업부문 등을 시찰하여 사업정형과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 해결을 위한 과업 등을 도당

29) 사회과학출판사, 『령도예술』, pp. 128~129.

30) 사회과학출판사, 『령도예술』, p. 129.

31) 이 분류와 그 각각에 대한 설명은 주로 황재준에 따른 것이다. 황재준은 정창현의 분류를 원용했다.

32) 김일성은 “1960년 강서군당 현지지도에서 제기한 과업에 근거”하여 모든 군당일군들이 매달 15일동안 현지에 내려가 사업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울 것을 지시했다. 김일성, “농촌경리에서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킬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평안남도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 결론 1963년 10월 18일, 『김일성저작집 1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474.

및 군당 확대회의나 도내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관계자들과의 연석 회의에서 지시한다. 따라서 현지지도는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일례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조직된 것은 1961년 김일성의 숙천군 현지지도 때이며 당, 국가기관들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수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가 수립된 것도 평안남도 강서군 청산리를 비롯한 농촌단체들에 대한 당중앙위원회의 현지지도를 통해서였다.

또한 정기 현지지도는 연초에 수립된 경제계획 및 당정책을 인민대중에게 직접 전파하기 위해서도 실시된다. 정기 현지지도는 연초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한 해의 경제계획에 기초한 당의 정책과 의도를 인민대중에게 설명하여 이를 관철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나는 한 도에 한 15일씩 나가 있으면서 로동자, 농민, 기술자들과 만나 담화도 하고 그들에게 당정책도 해설해주며 그 과정에 인민들로부터 배우기도 합니다.”라고 인정했다.³³⁾

수시 현지지도는 정기 현지지도를 행한 지역 및 생산단위에 수시로 방문하여 사업의 진행정도 등을 검열하고 여기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김일성은 장수원협동농장과 같은 잘 알려지지 않은 곳에도 한국전쟁이 끝난 후 90여차례의 현지지도를 하였다. 수시 현지지도는 보통 1일 또는 2일 정도 진행되는 데, 생산을 독려하며 사업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실시된다. 지금까지 실시된 현지지도의 많은 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특별 현지지도는 모범창출에 기여한 생산단위 및 김일성의 현지교시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곳에서 실시된다. 이 역시 수시 현지지도와 같이 보통 당일로 끝나며 김일성과 김정일의 즉흥적 결정에

33) 김일성, “자주적인 새 사회 건설에서 인테리의 역할,” 조선통일지지 배네수엘라위원회 위원장 일행과 한 담화 1980년 8월 14일, 『김일성저작집 3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 246.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특별 현지도는 당면한 정치·경제적 위기를 돌파하는 데 활용되기도 한다. 김일성은 1956년 이른바 ‘8월 종파사건’ 등으로 표면화된 당내 권력도전을 제압하고 자신의 권력기반을 재정비하기 위해 동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끝나자마자 강선제강소를 현지도했다. 당시를 회상하여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창고로 쓰자고 지은 집에 로동자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은 어렵다, 미국놈들은 진달래꽃이 피면 다시 쳐들어 오겠다고 하였는데 정말 들어올는지도 모른다, 어떤 나라 사람들은 이 나라와 한짜이 되어 우리를 내려누르려고 한다, 우리 나라 종파놈들은 제각기 자기 상전을 등에 업고 당을 반대하고 있으며 리승만은 미국을 믿고 우리에게 덤벼들려고 한다, 우리는 누구를 믿겠는가, 당신들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그런데 당신들이 락심해 있으면 되겠는가, 형편이 이처럼 어려울수록 우리가 용기를 내어 일해야 한다, 이렇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다 이야기하였습니다.³⁴⁾

이와 같이 현지도는 그 형태나 목적에 따라 분류될 수 있으며 주로 수시 및 특별 현지도에 의하여 모범이 창출되면 곧 정기 현지도를 통해 그 모범이 전국적으로 일반화된다.

34) 김일성, “당사업에서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없애며 일군들을 혁명화 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66년 10월 18일, 『김일성저작집 2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495.

2. 현지도의 목적

이러한 성격의 현지도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또는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는 구체적 현실과 인민의 지향을 반영한 정책과 방침들을 구상하고 작성하기 위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다. 이는 당관료와 기관간부들의 주관주의나 관료주의를 척결하기 위한 것이다. 김일성은 현지도의 목적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얼마전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어느 나라 사람이 나에게 왜 지방에 자주 현지도하러 다니는가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회주의사회에서 관료주의가 나타나면 자본주의사회의 관료주의보다 더 무섭다, 자본주의사회는 사적 소유에 기초한 사회인 것만큼 정부에서 아무리 관료주의를 부려도 개인기업가들은 자기들에게 리득이 있으면 움직이고 리득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관료주의가 통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사회주의사회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조직화된 사회이기때문에 우에서 한 사람이 지휘를 잘못하면 큰 편향을 범할 수 있다, 나는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요구에 맞게 사업하기 위하여 늘 아래에 내려간다고 말하여 주었습니다.

우리 당이 지금까지 조선혁명을 끝바른 승리의 한 길로 령도해 올 수 있는 것은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군중에 의거하여 정책을 세우고 모든 문제를 군중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갔기 때문입니다. 당이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관료주의적으로 내리먹이면 좌우경적 편향을 범하기 마련입니다.³⁵⁾

35) 김일성, “올해 농사경험과 다음해 영농사업방향에 대하여,” 농촌경리부 문 지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80년 9월 21일. 『김일성저작집 3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p. 253~254.

북한은 “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식주의, 본위주의 등은 모두 자본주의사상에 근원을 두고 있는 반인민적인 사업방법”으로서 “일꾼들이 관료주의를 부리고 주관주의, 형식주의, 본위주의를 한다면 당과 대중을 이탈시키게 되고 대중의 창발성과 자각성을 불러 일으킬 수 없으며 결국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할 수 없다”고 경계하고 있다.³⁶⁾ 이 때문에 김일성은 “현지지도를 강화하여 국가사업을 대중과 직접 토의하며 대중의 열성과 창발성에 의거하여 난관을 이겨내며 그들의 절실한 요구를 제때에 해결하여 주는 진정으로 인민적인 사업방법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³⁷⁾

해방후 토지개혁을 위해 김일성은 대동군과 순천군을 비롯한 평안남도 일대의 농촌에 나가 한 달 이상이나 농촌의 형편과 농민들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이해했다고 한다. 또한 1973년 황해남도 은률광산을 돌아보면서 김일성은 이 광산에 대한 현지도의 목적이 “일꾼들에게 보수주의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데 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강물이 깊은가 얇은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 강물에 돌을 던져본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³⁸⁾

이처럼 현지도는 대중과 유리될 수 있는 경향을 엄격히 경계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연히 검열기능을 하기 마련이다. 현지에 가서 실정을 조사하지 않으면 허부단위에서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중앙당으로 하여금 현지지도를 통한 일상적 검열의 중요성을 절감케 하는 원인이 된다. 김일성은 “지난 여름에 평안북도를 현지도하

36) 김성오, “수령님의 고매한 공산주의적 풍모와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작풍을 따라 배우자,” 『근로자』, 1974년 제11호, p. 49.

37) 김일성, “사회주의건설에서 인민정권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1차회의에서 한 연설, 1957년 9월 20일. 『김일성저작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319.

38) 편집국, “어버이수령님께서 보여주신 정력적인 현지도의 위대한 모범,” p. 9.

면서 어느 한 공장에 가 보았습니다. 그 공장은 매우 중요한 공장인데 지배인과 당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을 잘 꾸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공장을 현지지도할 때에도 당을 속이려고 하였습니다.”라며 개탄한 적이 있다.³⁹⁾

둘째는 당의 노선과 정책을 대중들에게 이해시켜 그들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에서 창조력과 자각적 열성을 적극적으로 발휘하도록 하는데 있다. 즉 현지지도는 “민중의 주체의식을 유발하여 제기된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⁴⁰⁾ 이와 관련하여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교시한 바 있다.

당의 혁명적 령도의 기본요구는 대중의 정치적 각성을 끊임없이 높이며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발성을 당정책 집행에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하는 데 있습니다.⁴¹⁾

현지지도는 근로대중이 생활하고 투쟁하는 현지에서 그들을 각성시키고 고무하고 이끌어줌으로써 당의 노선과 정책 관철에로 대중의 힘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이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 인민대중이고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고 하는 주체사상의 관점에서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현지지도는 “인민대중이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은 인민대중 자신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립장에서 혁명위업수행에 동원될 때 비로소 높이 발양”된다는 주체사상의 전제 위에서 당정책을 관철하도록 인민대중을 조

39) 김일성, “당사업과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과장이상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60년 10월 19일. 『김일성저작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418.

40) 한재만, 『김정일: 인간·사상·령도』 (평양: 평양출판사, 1994), p. 223.

41)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pp. 268~269.

직하고 동원하는 사업방법인 것이다.

따라서 현지도는 대중운동인 ‘천리마작업반운동’,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등의 전개와 ‘평양속도’ ‘비날론속도’ ‘강선속도’ 등과 같은 ‘속도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천리마운동의 발단은 1956년 강선제강소에 대한 김일성의 현지도에 있다. 김정일도 관건적 사업에 대중을 동원하기 위해 자신이 현지도를 실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에는 정초부터 경제건설에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현지도를 하여 강성대국건설의 선봉부대인 로동계급이 다시 한 번 천리마를 타고 세기를 주름잡아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내가 자강도를 여러 차례 현지도한 것은 바로 로동계급 속에 들어가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며 전체 로동계급이 강성대국건설에 떨쳐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⁴²⁾

셋째는 한 단위에 대한 구체적 지도를 통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절박한 문제를 푸는 본보기를 창조하고 이를 일반화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반드시 중심고리를 찾아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여야 당정책이 철저히 관철될 수 있다고 본다. 김일성은 당 사업에 대해 “당은 현지도에서 반드시 중요한 한 고리를 뚫고 그 한 점에서 모범을 창조하였으며 거기에서 얻은 구체적인 경험과 교훈을 전반적으로 일반화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결합시켰으며 지도에서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성과적

42) 김정일,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9년 1월 1일.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453.

으로 극복”하여 왔다고 평가했다.⁴³⁾

북한이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는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 등은 모두 이러한 모범화의 구체적 사례이다. 김일성은 청산리 및 강서군에 대한 현지도도를 통해 당 및 국가경제기관들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개편했고 대안과 숙천에 대한 현지도도를 통해 인민경제관리 체를 변화시켰으며 창성군에 대한 현지도도를 통해 산간지대의 농촌문제를 해결하는 방도를 제시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구체적 단위에 대한 지도를 통해 전형을 만들어내고 이를 전국이 따라 배우도록 했다. 현지도도가 모범을 창조하고 이를 일반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은 김정일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잘 알 수 있다.

자강도에는 기계공업부문 로동계급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 일으키면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 있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강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온 나라에 일반화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일대 전환적 국면을 열어 놓을 것을 결심하고 자강도에 대한 현지도도를 다른 도들보다 먼저 합니다.

우리가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켜 내 나라, 내 조국을 부강하게 하려면 사회의 핵심력량이며 사회주의건설의 선봉부대인 로동계급부터 각성시키고 분발시켜야 합니다. 우리 세상은 로동계급의 세상이고 우리 나라는 로동계급을 위한 나라입니다. 로동계급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단결시키면 못해 낼 일이 없습니다. 내가 정초부터 여러 공장들을 현지도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로동계급을 분발시켜 혁명적대고조의 앞장에서 달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⁴⁴⁾

43)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p. 271.

44) 김정일, “자강도의 모범을 따라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자강도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도하면서 일군들과

현지지도를 통해 창조되는 시범단위는 보통 “당과 수령이 의도하는 문제가 전형적으로, 집중적으로 구현되어 있으며 다른 모든 단위들에서 거울로 삼고 받아들여야 할 모범이 담겨져 있는 곳”이 선정된다.⁴⁵⁾ 그러나 모범단위는 처음 시도되는 사업의 경우 보통 가장 낙후된 곳이 선택된다. 가장 낙후된 곳은 물자와 장비, 노동력을 집중할 경우 그 초기 발전속도가 비약적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현지지도의 직접적 목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부수적 효과로서 현지지도를 통해 ‘아버이 수령’이라는 이미지 강화와 수령의 절대적 능력을 정당화시키는 데 있다.

북한에서 수령은 당과 전체 인민의 조직적 의사의 유일한 체현자이고 혁명과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의 심장이며 최고뇌수이다. 따라서 수령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친 당의 노선과 정책을 작성하고 당과 국가의 대내외 활동 전반을 영도하는 존재이다. 이처럼 국가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영도하는 짐을 지고 있으면서도 전국의 도시와 농촌, 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을 현지에서 지도하여 어려움에 처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수령이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혁명의 천재’가 아니면 안된다. 더욱이 수령은 현지지도를 통해 난관에 부딪쳐 진전이 없는 사업에서 일대 혁신과 비약적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와 토대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열악한 도로조건이나 교통수단에도 불구하고 방방곡곡을 찾아 지도한다는 것은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인민의 생활을 친어버이 심정으로 보살피시는 자애롭고 영명하신 인민의 수령”임을⁴⁶⁾ 증명하는 좋은 근거이다. 따라서 “현지지도는 혁명에 대한

한 담화, 1998년 1월 16~21일, 6월 1일, 10월 20일, 22일. 『김정일선집 14』, p. 396.

45) 김학봉, “시범단위를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 『근로자』, 1986년 10월호, p. 76.

무한한 헌신성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시고 언제나 ‘인민행렬차’를 멈춤이 없이 인민들 속으로 들어가시는 숭고한 품모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선전되며 수령은 ‘인민에 대한 사랑의 최고화신’으로 찬양된다.⁴⁷⁾

이 점에서 현지도는 자연스럽게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 대한 이상화와 연결된다. 김정일은 “당의 유일사상교양에서 수령님의 현지도에 깃든 사적내용을 가지고 잘 교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수령님의 현지도와 관련한 사적자료를 잘 정리하고 사적물을 정중히 보위 관리하며 그것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는 사업을 옹계 조직”할 것을 지시했다.⁴⁸⁾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행한 현지도사적을 대를 이어 영원히 전한다는 이유로 북한 전역에 ‘현지도 사적비’를 세우고 있다.⁴⁹⁾

46) 편집국,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현지도방법을 따라 배우자,” p. 5.

47) 김수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인민에 대한 사랑의 최고화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1), p. 67.

48) 김정일,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생산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 함경남도 및 검덕광산 지도일군들과 한 담화, 1975년 7월 1일. 『김정일 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173.

49) 현지도사적비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현지도한 단위와 지역들에 현지도 사적내용을 돌에 새겨 세운 기념비이다. 사적비의 규모와 형식은 사적내용과 단위의 특성에 따라 달리하고 있다. 비문에는 현지도 내용과 인민의 충성 결의 등이 반영된다.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24』,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 p. 189.

Ⅲ. 시기별 김정일 현지도의 특성

1. 전체시기(1945~2001)

북한에 따르면 김정일이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당중앙위원회에 배치되어 당사업을 시작한 이후 2002년 6월 현재 38년간 4,200여일 동안 공장과 기업소, 협동농장과 탁아소, 유치원 및 일반 가정 등 총 8,400여개소를 현지도했으며, 이는 공식생활중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을 현장에서 보낸 것이라고 한다.⁵⁰⁾

이보다 앞서 북한은 2002년 2월 8일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1945년 이후 김정일의 현지도 내역을 상세히 보도했다. 이 보도에 의하면 김정일은 1945년부터 그가 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배속되기 전인 1964년 3월까지 2,380곳을 현지도했는데 날짜로는 1,567일, 거리로는 64,719km를 다녔다고 한다.

현지도라고 하지만 대부분 김일성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다닌 것이다. 김정일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도 10세 안팎의 나이로 김일성이 현지도할 때 따라 다녔고⁵¹⁾ 대학에 다닐 때도 김일성의 현지도를 수행했다.⁵²⁾ 북한도 이 시기의 김정일의 활동에 대해 “조

50) 「조선중앙방송」, 2002. 6. 18. 김정일이 당중앙위원회에서 일을 시작한 것은 1964년 6월 19일이다.

51) 한재만, 「김정일: 인간·사상·령도」, p. 36.

52) 김정일의 한 전기는 김정일이 “대학에서 과학탐구와 사상리론활동, 사회정치활동을 벌리시는 한편 온 나라 방방곡곡을 쉬임없이 찾으시는 아버지 수령님의 현지도를 자주 수행하시며 수령님의 령도를 정력적으로 보좌”하였다고 한다.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일동지락전」(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p. 80. 예를 들면 김정일은 1961년 9월과 1963년 2월에 황해제철소와 남포제련소에 대한 김일성의 현지도를 수행했고 1962년 7월~8월에도 김일성의 지방 당 및 경제일군창성연석

국의 현실을 체험”하거나 김정일의 사업을 보좌했다고만 설명하고 있다.⁵³⁾

북한의 방송이 주장하는 김정일의 현지도 내역을 그가 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들어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 그 이후 김정일이 사망하기 이전, 김정일 사망 이후의 세 가지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시기별 현지도 내역

구분	성장시기 (’45.11~’64.3)	김일성 사망 이전 (’64.4~’94.7)	김일성 사망 이후 (’94.8~’01.12)	합 계
단위	2,870개소	7,156개소	1,300개소	11,326개소
날짜	1,567일	3,637일	577일	5,781일
거리	64,719km	241,894km	116,694km	423,307km

한 해에 김정일이 어느 정도 현지도하는가를 알기 위해 시기별 연평균을 산출한 것이 <표 2>이다.

<표 2> 연평균 현지도 내역

구분	성장시기 (’45.11~’64.3)	김일성 사망 이전 (’64.4~’94.7)	김일성 사망 이후 (’94.8~’01.12)	총 평 균
단위	157개소	237개소	205개소	206개소
날짜	85일	120일	91일	105일
거리	3,530km	7,996km	18,425km	7,685km

회의 준비와 지도 사업을 현지에서 적극 보좌했다.

53) 『조선중앙방송』, 2002. 2. 8.

연평균을 보면 김정일의 현지지도는 김일성 사망 이전보다 김일성 사망 이후 단위수에서는 11.4%, 현지지도 일수에서는 24.2% 감소했고, 지도대상이 된 1개 단위당 체류일수도 0.51일에서 사망 이후의 0.44일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김일성 사망 이전의 현지지도에는 김일성의 현지지도를 수행한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일의 현지지도가 전체적으로 위축되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오히려 현지지도를 위해 다닌 거리는 김일성 생존 때보다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김정일이 현지지도를 위해 활발히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정일은 1945년부터 2001년까지 한 해 평균 206개소를, 평균 3.5일에 한 차례 현지지도에 나섰는데, 이 때 약 71km를 다닌 것으로 나타난다.

분야면에서 보면 현지지도가 1994년 이전에는 주로 문화·예술분야에 치중되어 있었으나 김일성 사망 이후에는 군사부문에 대한 현지지도가 62.6%를 차지하고 있다.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의 현지지도 거리가 크게 늘어난 것은 군사부문, 특히 평양에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군부대 시찰이 크게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김일성의 현지지도와 비교해 보면 김일성은 생전 8,650여일 동안 578,000여km를 이동하며 총 20,600여개 기관을⁵⁴⁾, 김정일은 577일 동안 116,694km를 이동하며 모두 1,300개 기관을 현지지도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일성은 김정일에 비해 보다 많은 지역을 방문하여 비교적 활발한 현지지도 활동을 했다. <표 3>에서 보듯이 김일성은 연평균 현지지도한 단위수나 일수에서 김정일의 거의 2배에 이른다. 김일성은 평균 이틀에 한 차례 현지지도를 했으나 김정일은 4일에 한 번꼴이다.

54) 『조선중앙방송』, 2002. 4. 13.

<표 3> 김일성·김정일의 현지지도 내역 비교

구 분	김일성('45~'94)		김정일('95~'01)	
	총계	연평균	총계	연평균
대 상	20,600개소	420개소	1,300개소	205개소
기 간	8,650일	177일	577일	91일
거 리	578,000km	11,796km	116,694km	18,425km

둘째, 현지지도 단위당 체류시간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평균 0.42일과 0.44일로 대체로 비슷하지만 한 단위를 현지지도하기 위해 이동한 거리는 김일성이 평균 28.1km로 김정일의 89.9km보다 훨씬 적다. 이는 김일성이 근거리의 현지지도를 선호한 것을 뜻한다.

셋째, 분야별로는 김일성이 경제·사회 등 비군사 분야 위주로 현지지도를 실시하였으나 김정일은 군사분야에 치중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김일성은 육·해·공군부대 3,120여개 단위를 방문하여 군사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15.1%이나⁵⁵⁾, 김정일은 814개소를 방문하여 그 비율이 62.6%이다.

<표 4> 김일성·김정일의 분야별 현지지도 비교

구 분	김일성('48~'94)		김정일('95~'01)	
	횟수	비율(%)	횟수	비율(%)
군사분야 현지지도 횟수/전체 현지지도 횟수	3,120/20,600	15.1	814/1,300	62.6
비군사분야 현지지도 횟수/전체 현지지도 횟수	17,480/20,600	84.9	486/1,300	37.4

55) 북한은 김일성이 1948년 2월부터 1994년 4월 25일 제564부대를 방문하기까지 군사부문에서 총 45만 6,670여리에 걸쳐 3,120여개 단위를 현지지도하였다고 한다. 『조선중앙방송』, 2002. 4. 24.

현재까지만 보면 전체적으로 김일성이 김정일에 비해 활발하고 다양한 분야의 현지지도를 선호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⁵⁶⁾ 앞으로도 김정일은 현지지도를 계속할 것이므로 이런 결과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나 그의 나이가 현지지도 활동을 왕성하게 할 때를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 1981년 이후(1981~2002)

서론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김정일 현지지도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한 분석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시기는 그가 공식적인 후계자로 활동하기 시작한 1981년 이후이다. 이 때부터 지금까지 김정일의 연도별 현지지도 횟수를 보면 <표 5>와 같다.

김일성이 사망하기 이전 김정일의 독자적인 현지지도 횟수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1981년부터 1993년까지 13년동안 모두 70회로 1994년부터 2002년까지 9년간 총 302회의 1/4에 미치지 못한다. 이는 김정일이 제2인자이기는 하지만 1993년까지 김일성의 왕성한 현지지도로 주로 수행한 때문이다. 다만 1984년과 1988년의 경우 예년에 비해 많았는데, 그 원인은 경제부문에 대한 현지지도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1983년까지 김정일의 현지지도는 대부분 각종 건축물에 대한 것이었으며 경제부문에 대한 현지지도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⁵⁷⁾

56)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제588호, pp. 43~45.

57) 1981년 김정일은 5월 18일에서 22일까지 묘향산지구를 시찰하였는데, 이 때 국제친선전람관과 묘향산 문화유적 및 명승지를 둘러보았다. 이는 4월 25일에서 27일까지 김일성이 묘향산지구를 현지지도하면서 교시한 내용의 관철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후 8월 16일에는 완공단계의 병상관, 청류관 건설사업을 지도했고 8월 25일에는 인민문화궁전을 시찰했다. 9월 18일에는 완공직전의 인민대학습당을 찾았고 11

<표 5> 연도별 현지지도 횟수

구 분	연 도	횟수	소계	총계
김일성 사망 이전 (’81~’94.7)	1981	6	70	372
	1982	1		
	1983	3		
	1984	15		
	1985	4		
	1986	5		
	1987	6		
	1988	14		
	1989	2		
	1990	2		
	1991	1		
	1992	8		
	1993	3		
김일성 사망 이후 (’94.8~’02.10)	1994	2	302	
	1995	11		
	1996	32		
	1997	29		
	1998	49		
	1999	50		
	2000	42		
	2001	41		
	2002	46		

* 2002년은 10월 31일까지이다.

* 몇일동안 한 지역을 돌면서 여러 곳을 방문한 경우는 1회로 계산

1978년에 시작된 북한의 제2차 7개년계획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월 30일에는 완공된 방상관과 청류관을 방문했다. 12월 21일에는 모란봉경기장 확장 공사 및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야외촬영거리 건설사업을 지도했다. 1982년에는 유일하게 자신의 생일인 2월 16일에 완공단계의 모란봉경기장 확장 공사장을 찾아 현지지도했다. 1983년에는 4월 20일 남포갑문 건설사업을 지도했고 6월 27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치대학을 시찰했으며 8월 24일에는 새로 단장한 옥류관을 돌아보았다. 이 해 김정일은 6월 2일부터 12일까지 중국을 방문했다.

현대화, 과학화를 통해 사회주의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것을 기본과업으로 하여 1984년에 끝나다록 되어 있었다. 계획년도의 마지막 해를 맞아 김정일은 2월 16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협의회에서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 데 대하여”라는 연설을 통해 농업과 수산업을 발전시키고 경공업혁명, 봉사혁명을 일으키며 주택을 대대적으로 건설할 것을 지시했다.⁵⁸⁾ 이는 인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과 인민소비품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김정일은 3월 31일 경공업부문 책임일군협의회를 소집한 데 이어 전국 각지의 공장·기업소들에서 생산, 전시한 경공업제품을 관람했으며 4월 1일에는 말린쌀밥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경공업혁명과 봉사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제시했다. 8월 3일에는 평양시경공업제품전시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생산잠재력을 총동원하여 생활필수품들을 증산할 것을 독려했는데, 이것이 <8월3일 인민소비품>생산운동의 발단이었다. 그는 12월에도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0차 전원회의를 소집하여 당의 경공업혁명, 봉사혁명 방침의 관철을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이외에도 김정일은 1984년에 처음으로 두 차례에 걸쳐 4개도를 순회하면서 경제부문에서의 목표 달성을 촉구했는데, 이것이 현지도 횡수의 증가를 가져왔다. 즉 5월 15일부터 18일까지는 김책제철소, 5월10일공장, 무산광산, 청진조선소, 청진화력발전소, 성진제강소, 5월24일수출품수산사업소, 룡성기계연합기업소 등 함경남·북도의 공장들을 시찰했고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락원기계공장, 평북제련소, 121호공장 등 평안남·북도의 공업부문을 둘러보

58) 김정일,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84년 2월 16일. 『김정일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1~24.

았다.

또한 김정일은 1988년에 전당, 전민이 총동원되어 전년에 시작된 제3차 7개년계획 수행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200일 전투’를 벌리도록 지시했다. 그는 정권수립 40주년을 맞아 2월에 전체 당원들에게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를 보내도록 하고 3월에는 주요 공장·기업소들에 ‘200일 전투 당일군방조소조’를 파견하여 해당 단위 일군들을 적극 도와주도록 하였다. 그는 ‘200일 전투’의 초점을 기간시설의 건설에 맞추고 이전부터 진행해 오던 발전소건설과 탄광개건확장공사, 김책제철연합기업소 2단계 확장공사, 무산광산연합기업소 확장공사,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건설 등에 힘을 집중하도록 하였다. 이 기간동안 김정일은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 함경북도내의 여러 공장·기업소들을 현지도하면서 생산의 정상화와 국가계획의 수행을 적극 독려했다. 이 결과 북한은 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500여개의 건설을 완공한 것을 비롯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높게 세운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한다.

한편 <표 5>에서 나타나듯이 김정일의 현지도는 1995년부터 차츰 늘어나 1998년 이후는 한 해 40회를 넘고 있다. 특히 1995년부터 1997년까지의 점증 현상은 당시 김정일이 총비서직에 취임하지 않고 있어도 그의 권력장악이 순조롭고 안정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 권력장악이 안정되어 있지 않았었다면 평양을 떠나 현지도에 나서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1998년에 현지도 횡수가 다른 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1997년 10월 그가 총비서직에 취임하면서 명실공히 김정일시대가 시작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02년 10월 현재 현지도가 45회여서 올해는 가장 많이 현지도를 한 해로 기록될 듯하다. 이는 김정일이 ‘선군정치’에 따라 군의 사기를 북돋우는 한편 회복조짐을

보이는 북한경제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한 발길을 재촉한 때문일 것이다.

김정일의 현지도를 형태별로 보면 하루에 한 단위만 현지도한 것, 하루에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복수의 단위를 현지도한 것, 몇일동안 도나 시, 한 지역을 돌면서 각종 분야의 여러 단위를 한꺼번에 현지도한 것 등이 있다. 빈도수로 볼 때 첫째의 형태가 압도적으로 많고 둘째의 형태는 경제부문이나 군사부문에 대한 현지도에서 가끔 나타나며 셋째의 형태는 거의 대부분 경제부문에 대한 현지도에서 관찰된다.

월별로 보았을 때 현지도는 6, 10, 11월에 많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는 비교적 날씨가 좋아 움직이기 쉬운 때이기도 하거나 당해년도 경제사업의 추진과 결산에서 의미있는 때이기도 하다. 6월은 상반기를 결산하는 시기이고 10, 11월은 한 해의 사업성과를 좌우하는 때이다. 사업의 결산과 현지도 횟수 사이의 연관성은 분기별 현지도 횟수의 증감을 살펴보면 좀더 확연히 드러난다.

<표 6> 월별·분기별 현지도 횟수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월별 횟수	18	27	29	42	31	44	22	24	27	43	35	30
분기별 횟수	74			117			73			108		

분기별로 보았을 때 현지도 횟수가 많은 때는 2/4분기와 4/4분기이다. 이 시기는 각각 상·하반기를 마감하는 때이므로 한 해의 사업성과를 높이도록 독려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다. 따라서 김정일은 그 해의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받으면서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문의 현장을 찾는 것으로 추측된다.

김일성 사망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별 및 분기별 현지도 횡수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다.

<표 7> 김일성 사망 이전 및 이후 월별·분기별 현지도 횡수

월	월 별 회 수		분 기 별 회 수	
	김일성 사망 이전('81~'93)	김일성 사망 이후('94~'02)	김일성 사망 이전('81~'93)	김일성 사망 이후('94~'02)
1	1	17	12	62
2	4	23		
3	7	22		
4	14	28	25	92
5	4	27		
6	7	37		
7	8	14	21	52
8	9	15		
9	4	23		
10	6	37	12	96
11	2	33		
12	4	26		

김일성 사망 이전, 즉 김정일이 공식 후계자로 활동하던 시기에는 4월, 그리고 무더운 7, 8월에 현지도가 많았다. 이는 4월에 김일성 생일이 있는 것과 이 시기 현지도한 단위가 더운 날씨에도 쉽게 찾을 수 있는 평양이나 평양 인근 지역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근거리의 현지도가 대부분이었던 이 시기와는 대조적으로 이동거리가 길어지는 김일성 사망 이후 시기에 7, 8월의 현지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1월에 현지도가 가장 적은 것은 좋지 않은 날씨와 모든 사업이 시작되는 시기라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김일성 사망 이후에는 10, 11, 12월의 현지도가 크

게 늘어난 것이 김일성 사망 이전 시기와 뚜렷이 다른 점이다.

안보상의 이유로 소재지를 밝히지 않는 군사부문에 대한 현지도 장소를 제외하고 지역별로 보면 평양이 거의 절반으로 타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평양이 수도로서 모든 분야의 중심지이자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을 감안하면 이런 결과는 매우 당연한 것이다.

<표 8> 지역별 현지도 횡수

지 역	횡 수		총 계
	김일성 사망 이전('81~'93)	김일성 사망 이후('94~'02)	
평양	57	36	93
평안남도	1	6	7
평안북도	3	18	21
함경남도	3	9	12
함경북도	4	9	13
황해남도	0	14	14
황해북도	0	2	2
량강도	1	12	13
자강도	1	9	10
강원도	0	14	14
남포, 개성	3	2	5
총 계	73	131	204

20여년이라는 전체기간으로 볼 때 여타 행정구역에 대한 현지도의 횡수는 황해북도와 두 개의 직할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비슷하다. 황해북도의 경우는 공장이나 기업소가 거의 없고 그나마 주력산업인

농업도 황해남도에 뒤져 특화산업이 없는 것이 김정일의 발길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⁵⁹⁾

김일성 사망 이후 시기만 보면 평안북도와 황해남도, 량강도, 자강도, 강원도에 대한 현지도의 증가가 눈에 띈다. 평안북도는 기계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과 신의주를 중심으로 여러 분야의 경공업 단지를 갖춘 지역이기 때문이다. 황해남도의 경우는 토지정리사업과 구월산 유원지 건설장, 협동농장 등에 대한 현지도 때문에 횡수가 많아졌는데, 여기에는 군사분계선이 있는 지역이라서 군부대방문을 겸해 김정일이 자주 찾은 때문으로 생각된다. 량강도와 자강도, 강원도에 대한 현지도의 증가는 전력생산을 위한 중소형발전소의 건설을 독려하는 동시에 량강도의 경우는 대홍단군 사업의 추진, 자강도는 ‘강계정신’의 구현, 강원도는 토지정리사업⁶⁰⁾ 및 군부대방문과 연계된 때문인 듯하다.

내용으로 보면 후술하겠지만 대부분이 군사와 경제부문에 대한 현지도이다. 현재 김정일정권의 목표는 사회주의체제 유지와 경제발전인데,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회주의경제강국 건설’이라는 구호로 나타나고 있다. 체제유지의 관건을 군사력 강화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 현지도의 양대 축은 경제부문과 군사부문에 대한 것이다.

59) 이기동, “김정일 현지도에 관한 계량분석,” p. 229.

60) 북한의 농업성 최명현 국장은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국> 10월호와 가진 인터뷰에서 토지정리사업을 일시적 또는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라 항구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목표로 하는 토지정리사업 규모는 약 60만ha인데, 강원도와 평안북도, 황해남도에서만 지난 4년간 모두 18만ha의 토지가 정리됐으며 이 과정에서 약 6천ha의 새로운 경작지를 얻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평안남도, 평양시, 남포시의 토지정리는 1, 2단계로 나누어 모두 9만ha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연합뉴스』, 2002. 11. 21.

김일성 사망 이전에는 군사부문에 대한 현지지도가 거의 없었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부분 김일성이 군부대를 방문할 때 수행한 것이었다. 군사부문에 대한 현지지도는 1995년부터 크게 늘었으나 경제분야에 대한 현지지도도 특히 1998년부터 크게 증가한다. ‘선군정치’를 주장하면서도 경제부문에 대한 현지지도가 많다는 것은 경제회생에 대한 그의 의지를 읽을 수 있게 한다.

각종 전시회를 돌아보거나 극장, 문화회관, 병원, 기념탑 등 신축 중인 건물을 시찰하고 학교 및 관광지 등을 찾는 등 사회·문화부문에 대한 현지지도도 있으나, 이는 대부분 김일성이 살아있던 80년대의 일이고 최근에는 그 수를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적다.⁶¹⁾

현지지도한 단위를 살펴보면 공개된 것 가운데에서는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없다. 김정일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건설 중에 있거나 새로 건설된 곳을 많이 찾았고 창립기념일 등 뜻깊은 날을 맞은 단위를 가끔 방문하였는데, 이는 어느 국가의 국정 최고책임자에서든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일반기관을 현지지도할 때 김정일은 일정한 행동패턴을 보인다. 우선 그 기관에 있는 김일성의 동상이나 현지교시판, 현지지도사적비를 돌아보고 그 업적을 찬양한다. 이어 일정한 장소에서 사업현황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아니면 곳곳을 돌아보면서 보고를 듣는다. 이 과정에서 사업관련 지시를 한다. 그 뒤 대부분 그 기관이 준비한 예술공연을 관람한 후 관계자들을 치하하고 선물을 전달하며 기념사진을 찍는다.

61) 예술공연 관람을 현지지도로 보면 문화부문에 대한 현지지도의 비율은 증가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현지지도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사회·문화부문에 대한 현지지도의 비율은 매우 낮다.

IV. 부문별 김정일 현지지도의 특징

1. 군사부문

현지지도를 부문별로 나누어 그 횟수의 증감을 추적할 수 있으면 의미가 있겠으나 부문별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예컨대 2002년 6월 17일과 10월 1일 김정일은 제534부대를 방문했는데, 이 경우 군사부문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는 이 부대 산하 농장과 묘목장을 시찰하면서 농장관리와 산림육성을 강조했다. 즉 외견상 군사부문으로 보이지만 내용은 경제부문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

또한 김정일이 군부대를 방문해 그 부대가 건설한 발전소 등을 둘러보고 전력생산을 강조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순전히 군사부문에 대한 현지지도로만 볼 수는 없다. 거꾸로 목장이나 제염소 등 군대가 건설했거나 건설중인 현장을 찾아 건설에 동원된 군인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우는 것을 경제부문 현지지도로 보아야 하는지도 애매모호하다.

그리고 김정일이 평양주재 중국 및 러시아대사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대사관 방문이나 외국 방문, 외국인사 접견 등을 현지지도로 보기는 곤란하며 이것들을 제외할 경우 사실상 외교부문 현지지도로 볼 수 있는 것이 없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정치부문에 대한 현지지도로 규정할 것인지 그 범주를 특정하기도 어렵다. 요컨대 북한이 현지지도한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면 부문별 분류가 가능할지 모르나 그렇지 않은 현실에서 부문별 분류는 자의적이기 십상이다.⁶²⁾

반면 완전히 군사부문에 대한 현지지도로 확신할 수 있는 사례는

62) 이기동은 경제, 군사, 사회문화, 외교, 정치부문으로 분류하여 현지지도 빈도수를 분석하고 있으나 그 분류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김정일이 전투부대를 찾아 전력증강과 관련된 지침을 하달한 경우가 다. 이 경우는 1995년 이후 뚜렷이 증가했다. 1995년 이전에 군사 부문과 관련한 현지지도로 볼 수 있는 것은 1987년 1월 19일 인민 무력부 혁명사적관을 방문한 것과 1992년 10월 8일 군 제10차 미술 전람회장을 돌아본 것 뿐이다. 1995년 이후 군사부문에 대한 현지지도가 급증한 것은 물론 '선군정치' 탓이다. 김정일은 1995년 1월 1일 제214부대를 방문했는데, 이를 북한은 '선군정치'의 효시로 선전하고 있다.

또한 김정일은 1997년 10월 당총비서직에 추대된 후에도 첫 공개 활동으로서 제564공군부대를 방문했다. 이에 대해 북한 방송은 "세계의 그 어느 사회주의 정치지도자도 당의 최고직위에 오른 후 첫 걸음으로 군대를 찾은 예가 없다"고 보도했다.⁶³⁾

최근 몇 년간 김정일의 현지지도가 군부대에 집중되어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1995년 이후 전체 현지지도 가운데 이것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9> 군부대방문 횟수

연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군부대방문횟수/ 전체횟수	7/11	17/32	18/29	28/49	25/50	13/42	19/41	18/46
비율(%)	63.6	53.1	62.1	57.1	50.0	31.0	46.3	39.1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에만 다소 비율이 떨어졌을 뿐 현지지도의 거의 반 이상을, 그리고 현지지도의 절대수가 적었던

63) 『평양방송』, 1997. 10. 31.

1995년을 제외하고 6년동안 한 해 평균 20회를 군부대를 찾아 전력 향상을 독려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⁶⁴⁾

이러한 김정일의 행보는 현재 북한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른바 ‘선군정치’의 구체적 표현이다. 김정일은 “선군정치는 나의 기본 정치방식이며 우리 혁명을 승리로 이끌어어나가기 위한 만능의 보검”이라고 했다.⁶⁵⁾

북한에 따르면 ‘선군정치’란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령도방식”이며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혁명군대의 강화를 통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위를 보장하고 인민대중의 창조적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정치방식”이다.⁶⁶⁾ 즉 ‘선군정치’는 글자 그대로 군을 최우선시하며 군을 통해 국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북한의 설명에 따르면 집단을 움직여 혁명을 전진시키는 데는 선봉이 있어야 하고, 그 선봉은 전투력, 견인력, 실천력 등에서 최우수 역량을 갖춘 집단이어야 하는데, ‘선군정치’는 군대를 이러한 선봉의 위치에 세워 군대를 본보기로 하여 온 사회가 고도의 혁명성을 지닌 정치적 역량으로 준비되도록 하는 정치방식이라는 것이다.⁶⁷⁾

김정일도 “지금 우리는 마치와 낮 우에 총대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독창적인 군사중시사상, 선군정치로선을 상징적으로

64) 2002년의 경우는 10월을 시한으로 계산된 것이므로 남은 두 달 동안 예년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50%는 쉽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65)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1999. 6. 16.

66)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1999. 6. 16; 류순찬,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자주시대의 가장 로숙하고 세련된 정치원로 이시다,” 『철학연구』, 2000년 제1호, p. 5.

67)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2000), pp. 43~44.

표현하는 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⁶⁸⁾ 망치와 낫 위에 총이 있다는 것은 혁명과 건설의 제일선에 군대가 서 있다는 뜻이다. 이 점에서 노동자·농민을 혁명의 핵심역량으로 간주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결정적 차이가 있다.

북한은 ‘선군정치’가 김정일의 ‘독창적인 사상’에서 나온 것으로 선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군대가 “나라의 방위력이라는 사상을 초월하여 혁명군대는 혁명의 기둥, 주력부대이며 군대이자 곧 당이고 정권이며 민중이라는 독창적인 사상, 혁명군대는 국방의 주력일 뿐 아니라 사회주의건설에서도 주력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⁶⁹⁾

북한이 군에 의지하는 ‘선군정치’를 시행하게 되는 출발점은 동유럽 사회주의국가와 구소련에서 주민소요가 발생했을 때 군부가 동요됨이 없이 무력으로 진압했더라면 사태는 달라졌을 것이라는 인식이다. 동유럽사회주의나 구소련이 군사를 정치와 완전히 분리시켜 군대를 비정치화된 집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회주의체제의 붕괴과정에서 군부가 흔들렸고 그것이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함에 있어 군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특별히 부각시켰다는 것이다.⁷⁰⁾

북한은 1999년 6월 16일 「로동신문」, 「근로자」의 공동논설인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를 통해 선군정치의 의의와 목표를 자세히 소개했다.

‘선군정치’의 당위성에 대해 역사적으로 북한은 군대를 먼저 창건한 후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당 창건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어려운 시기마다 군대가 앞장서서 난국을 타개해 왔고, 북한군은 노동계급의 전

68) 광순, “천출명장의 선군정치,” 「로동신문」, 2000. 3. 17.

69) 김화·고봉, 「21세기 태양 김정일장군」(평양: 평양출판사, 2000), p. 91.

70)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p. 3.

투성과 혁명성 등을 체현하고 있기 때문에 군을 앞세운 것은 노동계급을 앞세운 것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동구권 등 사회주의 나라가 ‘혁명의 영도계급’으로서 노동계급만을 중시했기 때문에 몰락하였다고 하면서 제국주의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제생존을 위해서는 ‘선군정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설하고 있다.

마지막 이유에서 보듯이 ‘선군정치’는 김일성 사후의 위기를 극복함에 있어 군을 전면에 내세워 체제 보위와 경제건설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일종의 ‘경제·국방 병진노선’이다.

북한은 1990년대들어 국내외적으로 두 가지 위기에 봉착했다. 하나는 소련의 해체와 동구 사회주의 붕괴로 상징되는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그로부터 야기된 체제붕괴에 대한 우려이고, 다른 하나는 식량난으로 대표되는 김일성 사후의 급격한 경제사정 악화와 사회통제기제의 이완 내지 무력화이다. 북한이 이러한 세계질서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국과 베트남처럼 개혁·개방할 수밖에 없었으나 한반도에는 남한을 비롯한 “제국주의세력이 호시탐탐 북한붕괴를 책동”하기 때문에 북한에게 개혁·개방은 대단히 위험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 때의 상황에 대해 『로동신문』은 “격변하는 세계정세와 여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붕괴, 그에 따르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 반공화국책동의 격화, 이러한 가운데서 민족의 존엄을 지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면서 “제국주의자들은 군사적으로 위협공갈하고 경제적으로 봉쇄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 ‘개혁’, ‘개방’에로 유도하려고 하였다”고 요약했다.⁷¹⁾

이러한 난국에서 김정일은 자신이 믿고 의지하며 활용할 수 있는 타개책이 무력에 있다고 생각했다. 김정일은 간부들과 함께 한 자리

71) “민족적 자존심이 강한 인민은 불패이다,” 『로동신문』, 2001. 6. 21.

에서 “내가 오래전부터 강조하여 오지만 정권은 무력에 의하여 보워됩니다. 이것은 오랜 역사적 과정에 확증된 진리”라고 말했다.⁷²⁾

북한은 이에 대해 “정권은 총대에서 나오며 총대에 의거하여 유지된다. 혁명과 건설의 성패, 사회주의의 운명은 총대에 의해 좌우되며 평화와 나라의 안전도 총대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부연한다. 즉 총대를 중시하는 ‘선군정치’는 ‘반공화국 책동’을 분쇄하고 사회주의 운명을 수호하기 위한 무기로서 채택된 것이다.

외부로부터의 위협 못지않게 북한은 내부적으로도 경제난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직면했다. 사회주의권의 몰락에 따른 외부지원의 감소, 미국의 지속적인 경제제재, 거듭되는 자연재해, 과도한 군사비 지출 등으로 90년대 들어 북한의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에 허덕였다. 특히 극심한 식량난으로 식량배급체계가 붕괴되자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북한 주민들이 농민시장이나 암시장, 친·인척으로부터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 탈북하거나 여러 지역으로 떠돌아 다니게 되었다.

북한 당국은 이전에는 엄격하게 사회이동을 통제하였으나, 배급체계의 붕괴 때문에 식량구입과 장사를 위한 주민들의 이동을 일정 수준 허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통행증 없는 주민들의 여행을 묵인할 수 밖에 없었고 주민들이 식량을 사고 팔며 다른 물건과 바꾸는 시장이 날로 확대되는 것도 막을 수 없었다.

점점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정보유통의 억제가 어려워졌고 직장, 학교 등의 운영과 조직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민들의 공장 출근률이 감소했고 생활총화에서의 자아비판과 상호비판이 요식행위가 되었으며 정치학습은 어디서나 환영받지 못했다. 주민들은 대화속에서 김일성 부자를 비판하거나 북한체제의 모순을 지적했고 각종

72) 김정일, “인민군대를 강화하며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 기풍을 세울데 대하여,” 『김정일 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4.

낙서사건, 뼈라사건도 증가했다.⁷³⁾

또한 농민시장 등의 증가로 북한사회의 기본 특징인 집단적 생활의 변화가 있게 되었고 집단주의적 생활양식이 흔들리면서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현상도 나타났다. 식량난에 시달린 주민들이 호구지책으로 공장의 설비와 부품을 뜯어 내다팔아 먹을 것과 바꾸는 등 각종 물품이 약탈되고 생필품이 암거래되는 등 범죄가 빈발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면 이른바 ‘아래로부터의 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동요가 확산되면 김정일의 권위와 체제의 정통성은 도전을 받게된다. 이 무렵 북한이 일탈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각종 포고문을 발표하거나 기존 공안조직을 강화하고 신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주민들의 동요가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⁷⁴⁾ 국부적인 주민소요는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도 진압할 수 있겠지만 주민소요가 전국적 규모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면 군이 전면에서 나설 수밖에 없다. 국가의 명령체계가 이완된 상황에서는 유일하게 상명하복의 동원체계를 갖춘 조직은 군대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북한은 ‘선군정치’라는 기치 아래 군대를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군대를 전면에서 내세워 약화된 당의 사회적 통제기능을 보완함으로써 체제의 균열 또는 붕괴를 막아보자는 것이다. 김정일은 1993년 국방위원장에 추대되면서 기존의 국가보위부를 국가안전보위부로 개칭하여 국방위원회 산하에 두도록 하였다. 또한 그동안 사회안전부에 위임했던 군범죄수사권을 인민무력부 보위사령부가 환수했고 민간범죄도 군사재판에 회부하도록 했으며 사회안전부가 발급해 오던 평양방문허가증도 1996년부터 호위사령부가 발급했다.⁷⁵⁾ 1994년에는 국경경비대를 인민무력부로 편입시켰으며

73) 박형중,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p. 38~47.

74) 박형중,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pp. 47~57.

1996년에는 평안남도 회창군 등 3개 군을 정무원 관할에서 인민무력부로 편입시켰다.⁷⁶⁾ 뿐만 아니라 1995년부터 신년사를 대신하여 발표되는 3개 신문 공동사설에 ‘조선인민군’이라는 군보를 포함시켰고,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전례없이 당총비서 추대 및 당구호 발표의 주체로 등장했다.⁷⁷⁾

요컨대 ‘선군정치’는 특히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에 이처럼 체제 안에서 군대의 선도적 역할이 더욱 커짐에 따라 위기속에서 체제안정과 강화를 목적으로 선택된 체제운영 방식을 말한다. 전체 현지도도 횡수에서 ‘선군정치’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군부대시찰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는 <표 9>가 이 점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표 9>에서 보는 것처럼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전체 현지도도 횡수는 1998년 이후 시기보다 적으면서도 군부대시찰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한편 ‘선군정치’는 군을 경제건설에 동원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북한은 김정일이 김일성 사후 ‘선군정치’를 펼쳐 군대와 경제를 모두 일으켜 세웠다고 선전한다. 『로동신문』은 “군사를 강화하면 경제건설이 지장을 받고 경제건설에 힘을 넣으면 군사를 약화시키게 된다”고 하지만 김정일은 “선군령도를 통해 군대도 강화하고 강성대국에로의 도약대를 마련하는 경이적인 현실을 펼쳤다”고 찬양했다.⁷⁸⁾ 이는 역으로 보면 ‘선군정치’가 군사력 강화를 통한 체제수호와 군 인력을 동원한 경제건설의 필요성에서 나온 것임을 말해 준다.

75) 『조선일보』, 1996. 5. 14.

76) 『내외통신 주간판』, 1006호, 1996. 5. 23.

77) 1997년 10월 당총비서 추대기구에 당중앙위원회와 함께 당중앙군사위원회가 포함되었으며 1998년 4월 정권 창건 50주년을 기념해 발표한 당구호도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공동명의로 발표되었다.

78) 『로동신문』, 2001. 7. 26.

북한은 1994년 7월부터 1998년 9월 헌법개정 때까지 김일성 사망과 잇따른 자연재해 때문에 식량난·에너지난·생필품난·외화난 등 총체적인 위기양상을 보여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 시기에는 김정일이 ‘고난의 행군’을 외칠 정도로 경제 위기는 체제위협으로까지 치닫고 있었다. 이 때문에 김정일은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논문을 통해 사회주의원칙 고수를 거듭 천명했다. 1997년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고난의 행군’ 정신을 본받자는 운동을 계속 전개할 것을 요구한 데⁷⁹⁾ 이어 1월 24일 김정일은 전당 당일군 회의에 보낸 서한, “올해를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혁명적 전환의 해로 되게 하자”를 통해 “오늘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올해 경제문제와 인민생활을 풀기 위한 투쟁에 전당, 전군, 전민을 힘있게 조직 동원하여야 한다”며 경제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⁸⁰⁾

그 후 1998년 9월 헌법개정과 함께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되고 새 내각이 출범하면서 새로 등장한 구호가 ‘강성대국 건설’이다. 북한은 1998년 8월 22일자 『로동신문』 정론⁸¹⁾을 통해 ‘강성대국’론을 발표했다.

이 정론은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이 “가장 신성하고도 위대한 애국애족위업”인 동시에, 김정일이 “선대국가수반 앞에 조국과 민족앞에 다지신 애국충정맹약이며 조선을 이끌어 21세기를 찬란히 빛내이시려는 담대한 설계도”라고 함으로써 강성대국 건설이 김정일정권의 목표임을 강조했다.

79)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건설해 가자,”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신년 공동사설, 1997. 1. 1.

80) 김정일, “올해를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혁명적 전환의 해로 되게 하자,”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p. 274~287.

81) 최철남·동태관·전성호, “정론: 강성대국,” 『로동신문』, 1998. 8. 22.

강성대국건설론은 요약하면 사상강국·군사강국을 이룩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강국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이 이미 사상강국, 군사강국은 이루었으며 남은 과제는 경제강국 건설인데, 경제강국의 실현에는 군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오늘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를 추켜세우고 가까운 앞날에 우리 나라를 경제강국의 지위에 올려 세우는 것입니다. 이 거창한 사업은 선군정치를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다”⁸²⁾고 하여 경제강국 건설과 ‘선군정치’의 불가분성을 설명하고 있다.

‘선군정치’와 경제강국 건설의 관련성은 군대가 “사회주의 수호자로서만 아니라 행복의 창조자로 역할”해야 한다는 데 있다.⁸³⁾ 다시 말해 ‘선군정치’ 속에는 경제건설에 군병력 동원을 확대하는 등 군을 이른바 ‘강성대국 건설의 주력군’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군대는 사회기간시설 건설의 핵심노동력으로 건설현장에 투입되어 왔고 부진한 농업생산력을 회복할 목적으로 농장에도 파견되어 왔다. 곧 군이 국방 수호자의 역할과 동시에 난국 타개의 개척자 역할을 겸하여 온 것이다.⁸⁴⁾

2001년 7월 24일 『중앙방송』은 “인민군대가 당의 경제정책을 제일 먼저 받아 물고 그 정당성을 실천하고 있다”면서 “혁명적 군인정신에 기초한 군대와 인민의 사상 일치, 투쟁의 기풍에 의해 경제강국 건설의 진격로가 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 방송은 김정일이 “양어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면 양어장을 건설하고 ‘기초식품 공장문제를 푸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면 선참으로 정제소금공장과 된장, 간장, 맛내

82) 『조선중앙방송』, 1999. 7. 13.

83)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p. 39.

84) 이종석, “북한의 권력구조 재편과 대남전략,” 『국가전략』, 제5권 1호 (1999), p. 168.

기 생산기지를 꾸려 놓은 것이 인민군대”라고 찬양했다.

1994년 11월 9일 발표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51호’는 경제건설에서의 군의 역할이 증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명령은 인민무력부에서 청류다리 2단계 공사와 금릉2동굴을 당창건 50주년인 1995년 10월 10일까지 건설할 것과 정무원에서는 건설에 요구되는 설비와 자재를 적기에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⁸⁵⁾ 군의 최고사령관이 군대에 건설을 명령한 동시에 정부의 관계기관이 건설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군을 도와줄 것을 지시한 것이다. 김정일은 1994년 11월 1일 1단계 공사가 끝난 청류다리 건설장을 찾아 현지지도했고 1995년 10월 9일에는 청류다리와 금릉2동굴 개통식에 참석하여 건설에 동원된 군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군이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던 1995년 이후 건설한 경제시설 가운데 대표적인 것만 보더라도 청류다리와 금릉2동굴을 비롯해 안변청년발전소, 태천발전소, 평양-향산 관광도로, 평양 타조목장, 황주 닭공장, 구월산유원지, 강원도 세포군의 내평발전소, 평양 9.9절 거리, 평양 4.25여관, 약품연구소, 주사기공장, 원산 갈마휴양소, 평양-원산 고속도로의 터널인 무지개동굴 개건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⁸⁶⁾ 김정일은 <표 10>에서 보는 바대로 이 모든 건설현장을 한 차례 이상씩 찾아 현지지도했다.

85) 최고사령관의 건설명령 하달은 세계사에서 전례가 없는 것이었는데, 명령속의 건설공사는 김일성이 생전에 큰 관심을 보였던 것이었고 당시 김일성의 유훈관철이라는 구호를 내세웠던 상황이어서 명령하달은 김일성에 대한 김정일의 충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86) 『청년전위』, 2001. 6. 29.

<표 10> 군부대투입 건설장 현지지도 내역

연도	날짜	지역	현지지도 장소
1994	11. 1	평남	청류다리
1995	10. 9	평남	청류다리, 금릉2동굴
	10.12	평양	평양-향산 관광도로
1996	6.10	강원도	안변청년발전소
	9.15	강원도	안변청년발전소
	10.15	황남	구월산 휴양지
	10.28	강원도	월비산발전소
1997	5. 1	황북·황남	정방산 및 구월산 유원지
	9.23	황남	구월산 유원지
	10.21	량강도	송암명기 소목장
1998	5. 2	남포	정제소금공장
	10. 6	평양	4.25여관
1999	1.11	평북	태천수력발전종합기업소
	4.28	량강도	송암명기 소목장
	8.23	평양	타조목장
2000	2.12	강원도	무지개동굴
	8.28	강원도	원산 갈마휴양소
	11. 7	강원도	안변청년발전소, 내평발전소
	11.13	황북	황주 닭공장
	12.19	평양	약품연구소, 주사기공장
2001	2.14	평북	태천발전소
	8.26	강원도	울림폭포
	8.28	강원도	원산 갈마휴양소
	9. 5	평양	9월27일닭공장

군대의 경제적 동원이 필요한 이유는 북한이 과도한 군대 유지 등으로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현재 110만명 정도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노동력이 부족한 실정에서 17세에서 27세까지의 젊은이들인 군인력의 활용은 경제건설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북한은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건설에서 큰 역할을 하여야 할 끝끝한 청년들이 군대에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방대한 건설에 필요한 많은 로력을 군대에서 보장받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고 시인하고 있다.⁸⁷⁾ 더욱이 장비가 크게 모자란 데다 에너지 공급도 원활하지 못해 건설공사의 대부분을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도 군 인력의 경제건설 투입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군대는 과거부터 대규모 건축물들을 건설하는 것 외에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공사에 일상적으로 투입되어 왔고 부대별로 수력발전소, 풍력발전기 등을 건설하여 군자체의 전기수요를 충당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에게도 일부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중·소형발전소 건설을 통한 전력수요의 자체 해결이 강조되면서 김정일은 이를 실천하고 있는 군부대를 찾아 격려하고 있다. 예컨대 1999년 10월 7일에 제757부대 건설 10월5일발전소, 2000년 3월 28일에 제380부대 건설 발전소, 7월 5일에 제324부대 건설 6월20일발전소, 2001년 5월 7일에 제415부대와 제567부대 건설 임진강 제1호발전소, 12월 27일에 제564부대 건설 1227호발전소, 2002년 10월 18일에 제836부대 건설 발전소, 10월 22일에 제507부대 건설 발전소 등을 시찰한 것이 그 대표적 예이다.

김정일이 전력공업부문과 농업부문을 강성대국 건설의 돌파구로 규정했기 때문에⁸⁸⁾ 군대도 주로 이 두 부문에 동원되는데, “농업생산은 강성대국건설의 천하지대본”⁸⁹⁾이므로 군부대들은 농촌지원에 발벗고

87) 김덕현, “인민군대는 조국과 인민의 보위자이며 사회주의건설의 적극적인 참가자이다,” 『근로자』, 1986년 11월호, p. 23.

88) 장은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령도,” 『력사과학』, 2000년 제1호, p. 16; 리순철, “경제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기 위한 현명한 령도,” 『력사과학』, 2000년 제3호, p. 29.

89) 김재서, “경제건설은 강성대국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업,” 『경제연구』, 1999년 제2호, p. 7.

나서게 된다.

군의 농촌지원은 협동농장들에 대한 인력 지원에 그치지 않고 토지정리사업 등에도 인력과 중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김정일은 토지정리사업에서의 군의 공헌을 다음과 같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인민군대가 동원되어 강원도의 토지정리를 도와 주었으며 지금 평안북도의 토지정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토지정리를 인민군대가 달라붙어 해제끼니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토지정리사업을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끝낼 수 있는 것도 인민군대가 이 사업을 틀어쥐고 한 것과 주요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⁹⁰⁾

제대군인을 생산현장에 집단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현상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북한은 1998년말에 인민군 10만명을 제대시켜 공장·기업소·협동농장 등 각 부문의 생산현장에 투입했다. 이 조치는 떨어지는 생산성을 노동력 보충으로 향상시켜 보려는 것이었다. 즉 국방위원회와 군최고사령부,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는 공동으로 1998년 10월 각 군부대에 10만명의 군관과 하사관을 제대시켜 각종 생산현장에 집단 진출시킬 것을 지시했다.

이 지시에 의해 인민무력성 간부국과 군병력 조정을 담당하는 대열국이 육·해·공군 각 부대에서 제대할 10만명의 군관과 하사관 명단을 작성했고 그 후 이들은 당의 지도하에 생산현장에 투입됐다.

인민군에서 제대한 10만명이 투입된 곳은 대흥단군종합농장,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성진제강연합기업소 등 농·공·광업 부문의 일선 생산현장이었으며, 특히 김책제철연합기업소와 성진제강연합기업소에

90) 김정일, “토지정리는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이며 만년대계의 애국위업이다,” 평안북도 토지정리사업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2000년 1월 24, 27일. 『로동신문』, 2000. 4. 18.

는 1999년초에 약 4천명의 제대 군인이 배치되었다고 한다. 2000년에도 1,200여명의 제대군인이 대홍단군 종합농장에 진출한 데 이어 수백명의 제대군인이 포태종합농장에 일터를 정했다.⁹¹⁾

이러한 현상들은 분명히 ‘선군정치’의 영향이지만 김정일이 군부대를 방문하여 주로 발전소나 부업농장, 목장, 양어장 등을 둘러본 것을 군사부문 현지지도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순전히 특정 부대의 사기를 진작하거나 격려함으로써 전력증강을 꾀하고 부대훈련 등을 참관하기 위해 방문한 경우, 즉 ‘선군정치’하 명실상부한 군사부문 현지지도만을 추렸을 때 어느 달에 이러한 목적의 군부대 방문이 많았는지를 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 월별 군부대방문 횟수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횟수	8	17	12	18	15	17	6	5	7	11	17	12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7, 8, 9월의 현지지도가 상대적으로 적고 나머지 달은 거의 고르다. 이는 군부대 방문이 거의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특정한 기념일과 크게 관련되어 있지 않음을 뜻한다. 예를 들면 4월과 6월에 태양절, 창군일, 해군절이 있어 군부대 방문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선군정치’에도 불구하고 전승절, 정권수립일, 창당일이 있는 7, 9, 10월에 오히려 적다.

연·월을 함께 관찰했을 때 특기할 것은 5월중 군부대방문은 1997년까지 한 차례도 없다가 1998년 갑자기 6회를 기록했고, 이 해의 군부대방문 총 28회 가운데 21회를 8월 3일 이전에 기록했다는 점이다. 북한이 8월 31일 ‘광명성 1호’를 발사한 것과 관련이 있지 않나

91) 『연합뉴스』, 2001. 7. 17.

한다.

‘선군정치’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1월 1일 군부대를 방문한 것은 1995년, 1998년, 2001년이고 1996년에는 음력설에 제963부대 여성중대를 시찰했다. 그리고 북한에서 최대명절이라는 태양절에 군부대를 방문한 것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이다.

1995년부터 해군부대는 매년 1회 이상씩 방문하였는데, 방문횟수는 모두 다르지만 제155부대와 제853부대는 두 번 찾았다. 공군부대의 경우 1995년, 1999년, 2000년에는 방문하지 않았다. 육군부대도 매년 보통 다른 부대를 시찰하지만 한 해에 두 번 방문한 부대도 있고 7년동안 세 차례 이상 시찰한 부대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제287, 507, 567, 597, 671, 757, 833, 834, 853, 969부대가 해당하며, 후자의 경우 제549부대는 3번, 제324부대와 제963부대는 4번 방문했는데, 제963부대는 1996년과 1999년에 각각 두 차례씩 방문한 것이 이채롭다.

군사부문에 대한 현지지도 가운데 군부대 방문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군사학교를 시찰한 것이다. 1996년 11월 차광수비행군관학교를 방문한 데 이어 김정일은 거의 해마다 육·해·공군 군사학교나 각종 병과학교를 찾아 군사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그는 제465부대와 제635부대처럼 그 해에 새로 ‘오중흡7연대’ 칭호를 받은 부대를 방문, 치하하고 있으며 여성부대를 찾아 격려하는 일이 잦다.

전방부대를 시찰할 경우 김정일은 대체로 고지정점에 위치한 전방지휘소에서 지형지물이나 군사력 배치상황을 보면서 지휘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 업적과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과업을 제시한 뒤 후방시설을 둘러보고 군인들의 생활이 만족한 수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한다. 이어 그 부대가 마련한 예술공연을 본 다음 기관총, 자동보

총, 쌍안경 등을 선물로 주고 기념사진을 찍는 것이 일반적인 행동패턴이다.

2. 경제부문

군사부문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경제부문에 대한 현지지도이다. 김정일은 1981년 이후 김일성과는 별도로 각 지역을 돌면서 공업부문에 대한 현지지도를 했었다. 예컨대 1984년 5월 15일에서 18일까지는 함경남·북도로 가 김책제철소와 룡성기계연합기업소 등을 시찰했고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평안남·북도의 락원기계공장과 평북제련소, 121호공장 등을 방문했다. 그런데 이러한 공업부문에 대한 현지지도는 예외적인 것이었다. 김일성 사망 이전 경제부문에 대한 지도는 거의 김일성에 의해 수행되고 있었고 경제부문과 관련한 김정일의 현지지도는 일부의 경공업부문과 건설사업 등에 국한되어 있었다. 더욱이 경공업부문에 대한 김정일의 현지지도도 1991년부터는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공업부문에 대한 김정일의 현지지도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1월 16일에서 21일까지 자강도를 방문해 여러 공장과 기업소를 시찰한 때이다.

현지지도가 해당 부문에 대한 김정일의 관여를 상징한다면⁹²⁾ 이는 김정일이 경제부문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1996년 김정일이 김일성종합대학을 방문하여 했다는 다음과 같은 비밀연설은 이 점을 강력히 시사한다.

지금처럼 정세가 복잡한 때에 내가 경제실무사업까지 맡아보면서 걸린 문제들을 다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혼자서 당과 군대를

92) 서동만, “김정일의 경제지도에 관한 연구,” pp. 32~50.

비롯한 중요 부문을 틀어 쥐어야지 경제실무사업까지 맡아보면 혁명과 건설에서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수령님께서 생전에 나에게 절대로 경제사업에 맡려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경제사업에 맡려들면 당사업도 못하고 군대사업도 할 수 없다고 여러 번 당부하시었습니다.…경제사업은 다른 일꾼들과 행정경제일꾼들이 책임지고 하여야 합니다.”⁹³⁾

위의 인용문이 사실이라면 1980년대말과 1990년대초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북한에 체제유지 위기가 닥치면서 김정일은 경제부문에 대한 관여를 최대한 줄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91년 이후 경제부문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김정일의 현지지도라면 1991년 10월 7일에 개업을 앞둔 광복백화점을 둘러본 것과 1992년 2월 26일에 준공단계의 애국천연색텔레비전조립공장을 시찰한 것이 전부이다.

김일성이 사망한 뒤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체제유지의 가능성에 숨통이 트이자 김정일은 1997년 1월 24일 ‘전당 당일군회의’를 하도록 하고 여기에 “올해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혁명적 전환의 해로 되게 하자”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에서 김정일은 “우리 혁명과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을 믿음직하게 수호할 수 있는 군사적 담보를 확고히 마련”하여 놓은 것이 “지난 2년반 동안 우리 투쟁의 주된 동화이며 우리의 위대한 승리”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에… 나라의 경제를 추켜 세우고

93) 『월간조선』, 1997년 4월호, pp. 305~317. 『김정일선집』에 실려있는 이 연설은 많이 개작되어 인용한 부분은 빠져있다. 김정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학 교육을 강화할데 대하여”, 김일성종합대학창립 50돐에 즈음하여 대학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 1996년 10월 1일.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p. 232~248 참조.

인민생활문제를 결정적으로 풀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제문제와 인민생활문제를 풀기 위한 투쟁에 전당, 전국, 전민을 힘있게 조직동원”할 것을 촉구했다.⁹⁴⁾ 이는 김정일이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떨어져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책임을 맡겠다는 자세로의 전환으로 해석된다.⁹⁵⁾

경제부문에 대한 김정일의 본격적인 현지도는 1997년 10월 김정일이 당총비서에 취임한 후인 1998년 1월 자강도에 대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1998년 9월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되어 명실상부한 최고지도자가 된 이후인 1999년부터 더욱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부문에 대한 현지도 횟수는 1998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경제에서의 실리보장을 강조한 2000년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2001년에 약간 추춤한 이후 2002년부터 다시 증가추세를 보인다.

<표 12> 연도별 경제부문 현지도 횟수

횟 수	연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경제부문 현지도 횟수/ 전체 현지도 횟수	1/11	4/32	1/29	11/49	23/50	23/42	18/41	22/46
비 율(%)	9.1	12.5	3.4	22.4	46.0	54.8	43.9	47.8

한편 경제부문에 대한 현지도는 제한된 자원과 자금을 특정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이 분야를 발전시키고 점차 이를 다른 부문으로 확산시켜 경제를 정상화 내지 발전시킨다는 전략하에 행해

94) 김정일, “올해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혁명적 전환의 해로 되게 하자,” 전당 당일군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97년 1월 24일.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p. 277~279.

95) 서동만, “김정일의 경제지도에 관한 연구,” p. 47.

진다. 따라서 현지지도는 경제논리에 입각한 해결방안이라기 보다는 최고지도자의 정책적 의지에 의해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⁹⁶⁾

이 점에 주목하여 경제부문 현지지도가 크게 증가하는 1998년 이후 김정일이 현지지도한 경제관련 단위를 일정한 범주로 나누어 연도별로 살펴본 것이 <표 13>이다.

<표 13> 경제부문 연도별·단위별 현지지도 횟수

구 분	현지지도 단위	연 도					총 계
		1998	1999	2000	2001	2002	
공 업	공장·기업소	10	6	7	8	11	42
	발전소, 군대발전소	3	5	9	6	6	29
	제염소	1	1	1	0	0	3
광 업	광산, 광산기업소	0	0	1	1	1	3
농 업	농장, 농촌기계화	1	6	7	4	6	24
	토지정리사업	0	3	3	1	0	7
축산업	목장, 닭공장	0	2	3	5	7	17
수산업	양어장, 메기공장	0	6	4	4	1	15
임 업	묘목장, 임산사업소	0	0	1	0	1	2
기 타	연구소, 과학원	2	3	0	0	1	6
총 계		17	32	36	29	34	148

* 1~2일동안 한 지역의 여러 공장·기업소를 방문한 것은 1회로 계산, 공장과 농장 등을 같이 방문한 것은 각각 1회로 계산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지지도를 가장 많이 한 단위는 공장과 기업소이다. 이는 공업부문에 대한 현지지도를 뜻하는 것으로, 그 함의는 북한경제의 희생에서 공업부문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96) 김상기, “김정일 경제부문 현지지도 분석,” p. 14.

공장·기업소 다음으로 김정일이 많이 찾은 곳은 발전소이다. 공업 발전의 선행조건이 전력생산에 있음을 감안하여 공장·기업소·발전소 방문을 같은 범주로 본다면 전체의 절반에 가깝다.

공업발전과 연관된 것이지만 북한정권이 당면한 과제중의 하나는 먹는 문제의 해결이다. 그래서 1998년의 신년 공동사설에서 2002년의 신년 공동사설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농업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211고지” “강성대국건설의 천하지대본”이며 “전국이 달라붙어 농사를 지음으로써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고 먹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⁹⁷⁾ 먹는 문제의 해결에 대한 강조는 <표 13>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표 13>에서 보는 바대로 먹는 문제의 해결과 직결되어 있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에 대한 현지도의 횡수는 63회에 이른다. 공업부문으로 분류된 공장·기업소에 대한 현지도에는 식료가공공장에 대한 현지도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제염소에 대한 현지도의 실제 내용은 먹는 문제의 해결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합친다면 첫 순위를 차지하게 된다. 그만큼 김정일이 먹는 문제의 해결에 신경을 쓰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경제부문에 대한 연도별 현지도 횡수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현지도 단위가 1999년부터 다양해지기 시작한 점이다. 토지정리사업이

97)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새해의 총진군을 다그치자,”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공동사설, 1998년 1월 1일;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1999년 1월 1일; “당창건 55돌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2000년 1월 1일;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 나가자,”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2001년 1월 1일;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2002년 1월 1일 참조.

시작되면서 농장에 대한 현지지도가 크게 증가했고 각종 목장과 양어장으로 현지지도가 확대되었다. 이는 먹는 문제의 해결이 보다 구조적이고 다양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⁹⁸⁾

경제부문에 대한 현지지도에서 관찰되는 흥미있는 형태는 몇일동안 한 지역을 돌면서 여러 단위를 일괄적으로 지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는 반드시 경제부문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간 동안 평양을 떠나있게 된다는 점에서 즉흥적으로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적을 뿐 아니라 그만큼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부문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별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현지지도에서 김정일이 지도한 단위에는 다소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표 14> 일괄 현지지도 단위

기 간	지 역	부 문	현 지 지 도 단 위
'81.5.18~22	평북	사회문화 부문	국제친선전람관, 묘향산 문화유적 및 명승지 등
'84.5.15~18	함북, 함남	경제 부문	김책제철소, 5월10일공장, 무산광산, 청진조선소, 청진화력발전소, 성진제강소, 5월24일 수출품수산사업소, 룡성기계연합기업소 등
'84.10.22~24	평북, 평남	공업 부문	락원기계공장, 평북제련소, 121호공장 등
'88.7.5~6	함북	경제 부문	경성도자기연합회사 등
'90.6.16~17	량강도, 자강도	종합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남포태운실농장, 혜산-만포 청년선 북부철길 등

98) 김상기, “김정일 경제부문 현지지도 분석,” p. 6.

기 간	지 역	부 문	현 지 지 도 단 위
'98.1.16~21	자강도	공업 부문	강계시·장강군·성강군에 건설된 장강 1호·2호 발전소, 장자산발전소, 북천3호발전소, 남리발전소, 외중발전소 등의 중·소형 수력발전소, 강계트랙터연합기업소, 2월제강연합기업소, 2.8기계연합기업소, 강계정밀기계연합기업소 등
'99.9.12~14	자강도	종합	랑림혁명사적관, 연풍혁명사적관, 장자강공작기계공장, 9월방직공장, 강계포도술공장, 강계피복공장, 강계기와공장, 화평군 부남청년발전소, 도안전국발전소, 강계에국복합미생물비료공장, 장강군 읍협동농장, 랑림군 읍협동농장, 잠업원종장, 강계시 사업관리소 병발 등
'99.9.22~24	함남	종합	신흥기계공장, 6월1일청년전기기구종합공장,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성천강22호발전소, 함흥성천강피복공장, 신흥양어장, 신흥유원지 등
'00.1.25~28	평북	공업 부문	락원기계공장, 구성공작기계공장, 12월5일청년광산, 량책베어링공장, 신의주신발공장, 신의주방직공장 등
'00.8.1~2	함북	경제 부문	김책제철소, 3월17일발전소, 새로 건설한 중소형발전소, 어랑군에 건설중인 제염소, 청진양어장 등
'00.8.26~27	함남	경제 부문	성천강 29·30·32호 발전소, 6월4일공장, 함주군 동봉협동농장 등
'00.8.28~31	자강도	종합	강계정밀기계연합기업소, 강계건방직공장, 홍주청년발전소, 성간입산사업소, 장강군 장평협동농장, 무덕협동농장, 성강군 성하잠업전문협동농장, 성간군 성간고등중학교 등
'01.9.14~15	함남	경제 부문	7월6일철도공장, 라훙콘크리트침목공장, 성천강 23·24·25·26·27호 발전소, 영광청년양어장, 신흥군 중평협동농장 등

기 간	지 역	부 문	현 지 지 도 단 위
'01.12.4~16	평북	공업 부문	북중기계연합기업소, 수풍발전소, 구성방직 공장, 신의주화학제품공장, 평안북도닭공장 등
'02.6.4~5	함남	종합	검덕광산, 룡양광산, 대흥청년광산, 북청군 룡전리 문화협동농장, 청흥리 청흥협동농장, 송전혁명사적지 등
'02.10.7~8	량강도	종합	삼지연군 건설장(신축한 백두관, 천지원, 여관, 주택 등), 대흥단군(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 홍암농장, 창평농장, 감자연구소 등), 삼지연군 무봉노동자구(신축한 유치원, 주택, 무봉중학교 등)
'02.10.24~25	평북	종합	락원기계연합기업소, 리영남이 지배인인 기업소 부업농장, 창성군(창골혁명사적지, 창성군문화회관, 창성식료공장, 직물공장, 종이공장, 금야2호발전소, 옥포협동농장종합축산기지 등)

* 종합은 경제 부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부문의 단위들을 현지지도한 경우를 말함.

* 공업 부문은 경제 부문 가운데 공업 부문에 한정된 경우임.

<표 14>에서 보듯이 이러한 형태는 1981년부터 2002년 10월 현재까지 모두 17차례 있었는데 최근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형태로 같은 해에 같은 지역을 두 차례 이상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II장에서 언급한 정기 현지지도의 성격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일성은 거의 매년 북한 전지역을 순회하면서 이런 형태의 현지지도를 실시했으나 김정일은 그렇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 역시 군사부문 현지지도에 치중하고 있는 탓으로 보인다.

전체시기에 걸쳐 지역별 횡수를 보면 평안북도와 함경남도가 각각 5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자강도 4회, 함경북도 3회, 량강도 2회, 평안남도 1회이다.

평안남도가 1회이고 황해남·북도가 전혀 없는 것은 이 지역들이 평양과 인접해 있어 현지도를 한 뒤에는 돌아오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김일성이 평양 인근 지역이라도 수일동안 체류하면서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를 만든 것과도 다른 점이다.

평안남·북도에서는 보통 공업부문에 대한 현지도를, 함경남·북도에서는 경제부문 전반에 대한 현지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자강도와 량강도에서는 비단 경제부문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사업을 점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물론 경제부문의 특화와 지역적 특성에 따른 것이다.

경제부문에 대한 현지도 단위는 전반적으로 북한의 경제시책 및 역점 분야와 일치한다. 북한이 한 해에 어떤 경제분야에서 무엇에 역점을 둘 것인가는 매년 1월 1일 발표하는 신년 공동사설의 경제시책·전략을 보면 알 수 있다. 1995년부터 2002년에 이르기까지 신년 공동사설에서 밝힌 구체적인 경제전략은 다음과 같다.

<표 15> 북한의 경제전략

연도	경 제 전 략	
	부 문	구 체 적 전 략
1995, 1996, 1997	농업	주체농법에 따라 알곡생산, 축산 증대
	경공업	섬유, 일용품, 식료가공제품 등 인민소비품 증산
	대외무역	수출품 증산, 대외시장 개척
	선행공업부문	전력, 석탄, 금속공업 발전으로 연료, 동력, 철강재 수요 문제 해소
	수송	철도운수 개선
	과학기술	과학기술의 개발과 혁신

연도	경 제 전 략	
	부 문	구 체 적 전 략
1998	농업	종자개선, 이모작 장려, 축산 증대
	경공업	인민소비품 증산
	선행공업부문	전력: 현존 능력 최대한 이용, 중·소형발전소 건설 석탄: 채탄 강화 금속: 철강재 증산
	수송	철도운행의 정상화
	과학기술	과학기술 혁신
1999	농업	감자농사혁명, 농업구조 개선, 이모작 장려, 종자혁명, 토지정리
	경공업	인민소비품 증산, 지방산업공장 완전 가동
	선행공업부문	전력: 신축중인 대규모발전소 조업 최대한 앞당김, 중·소형발전소 건설 석탄: 굴진과 갱건설을 통한 탄발 마련, 채탄 강화 금속: 철강재 증산
	수송	철도운수 발전
	과학기술	과학기술의 발전
2000, 2001, 2002	농업	주체농법 관철, 종자혁명, 감자농사혁명, 이모작 장려, 축산증대, 양어사업 발전, 토지정리
	경공업	1차소비품, 기초식품 증산
	선행공업부문	전력: 현존 발전능력 최대 발휘,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과 중·소형발전소 건설 병행 석탄: 석탄 증산 금속: 생산잠재력 최대한 발양, 금속공장의 설비 현대화
	수송	정비보강을 통한 수송수요 보장
	과학기술	과학기술 발전, 과학중시 기풍 진작, 과학기술행정 개선, 정보기술과 정보산업 발전에 주력, 첨단과학기술 인재 양성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은 매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몇가지 범주의 경제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전

개되는 경제부문 현지지도에서 김정일이 시찰하고 있는 현지지도 단위는 이러한 경제전략의 관철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김정일이 방문하는 대부분의 현지지도 단위는 <표 13>과 <표 14>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농업과 경공업, 선행공업 부문과 관련된 곳이다. 이 부문외에 수송분야의 정상화를 위해서 김정일은 1998년 10월 22일과 1999년 6월 17일 자강도의 압록강타이어공장을 시찰했고, 1998년 12월 17일에는 승리자동차종합공장, 2000년 5월 16일과 2001년 12월 4일~16일에는 북중기계연합기업소, 2001년 9월 14일~15일에는 함경남도의 7월6일철도공장과 라흥콘크리트침목공장, 2002년 1월 5일에는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 10월 21일에는 6월4일차량공장과 금강원동기공장을 방문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관심은 1998년 2월 8일 전국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 출품 프로그램 관람, 1999년 3월 7일과 2002년 6월 7일 과학원 함흥분원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고 토지정리와 관련하여는 1999년 강원도에 세 차례, 1999년과 2000년에 걸쳐 평안북도에 세 차례, 2000년 12월 5일과 18일 황해남도에 두 차례 현지지도를 하였다.

그러나 석탄증산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광산을 찾는 일은 적다. 김정일이 광산을 방문한 것은 2000년 1월 25일~28일 평안북도의 12월5일청년광산을 찾은 것이 처음이며, 2001년 11월 4일에 함경북도의 무산광산연합기업소, 2002년 6월 4일~5일 함경남도의 단천지구를 찾아 검덕광산, 룡양광산, 대흥청년광산을 시찰한 것이 전부이다.

VI. 결 론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관한 학문적 성격의 연구활동이 시작된 지 40여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연구성과가 있었지만 이쉽게도 현재 북한연구는 현상에 대한 ‘설명’과 ‘예측’을 ‘과학적 연구’의 척도라고 할 때 ‘과학’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만큼 아직도 북한의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다.

북한연구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로 발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자료의 부족이다. 지금까지 북한연구에 주로 활용되어 온 자료는 그 절대량과 다양성이 부족한 북한의 출판물, 언론매체의 보도 등이다. 이것마저 선전성이 강해 내용에 신뢰성을 확신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연구자가 직접 북한을 방문하여 경험적 조사를 할 수 없는 실정에서 다른 대안은 없다.

본 연구는 『조선중앙년감』에 수록되어 있는 김정일의 현지도 내역을 여러 변수로 분류하여 현지도 횡수의 변화를 추적하고 그 변화의 원인을 설명함으로써 김정일 현지도의 전체적인 특징을 추출하고자 했다. 북한이 최고지도자의 의지에 의해 획일적으로 움직이는 사회라는 점을 고려할 때 김정일의 행동궤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현지도에 대한 분석은 북한연구에 일정한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본론에서 발견된 몇가지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평균으로 보면 김정일의 현지도는 김일성 사망 이전보다 김일성 사망 이후 현지도한 단위수와 일수에서 감소했으나 현지도를 위해 다닌 거리는 김일성 생존 때보다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김정일이 현지도를 위해 활발히 이동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 분야면으로 볼 때 현지도가 1994년 이전에는 주로 사회·문화분야에 치중되어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군사부문이 62.6%를 차지하고 있다.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의 현지도 거리가 크게 늘어난 것은 군사부문, 특히 평양에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군부대 시찰이 크게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셋째, 김일성이 사망하기 이전 김정일의 현지도 횡수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1981년부터 1993년까지 13년동안 모두 70회로 1994년부터 2002년까지 9년간 총 302회의 1/4에 미치지 못한다. 이는 김정일이 제2인자이기는 하지만 1993년까지 김일성의 왕성한 현지도를 주로 수행한 때문이다.

넷째, 김정일의 현지도는 1995년부터 차츰 늘어나 1998년 이후는 한 해 40회를 넘고 있다. 특히 1995년부터 1997년까지의 점증 현상은 당시 김정일이 총비서직에 취임하지 않고 있어도 그의 권력장악이 순조롭고 안정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 권력장악이 안정되어 있지 않았었다면 평양을 떠나 현지도에 나서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1998년에 현지도 횡수가 다른 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1997년 10월 그가 총비서직에 취임하면서 명실공히 김정일시대가 시작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월별로 보았을 때 현지도는 6, 10, 11월에 많이 이루어졌고 분기별로 보면 현지도 횡수가 많은 때는 2/4분기와 4/4분기이다. 이 시기는 각각 상·하반기를 마감하는 때이므로 한 해의 사업 성과를 높이도록 독려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다. 김정일은 한 해의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받으면서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문의 현장을 찾는 것으로 추측된다.

여섯째, 안보상의 이유로 소재지를 밝히지 않는 군사부문에 대한 현지도 장소를 제외하고 지역별로 보면 평양이 거의 절반으로 타지

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고 여타 행정구역에 대한 현지지도 횡수는 황해북도와 두 개의 직할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비슷하다.

일곱째, ‘선군정치’하에 시행되고 있는 김정일의 군부대방문은 2000년에만 다소 비율이 떨어졌을 뿐, 김정일은 현지지도의 거의 반 이상을, 그리고 현지지도의 절대수가 적었던 1995년을 제외하고 6년동안 한 해 평균 20회를 군부대를 찾는 데 할애함으로써 ‘군사우선’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덟째, 경제부문에 대한 김정일의 본격적인 현지지도는 1997년 10월 김정일이 당총비서에 취임한 후인 1998년 1월 자강도에 대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1998년 9월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되어 명실상부한 최고지도자가 된 이후인 1999년부터 더욱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부문에 대한 현지지도 횡수는 1998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2001년에 약간 주춤한 이후 2002년부터 다시 증가추세를 보인다.

아홉째, 경제부문과 관련해 현지지도를 가장 많이 한 단위는 공장과 기업소이며, 현지지도 단위가 1999년부터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토지정리사업이 시작되면서 농장에 대한 현지지도가 크게 증가했고 각종 목장과 양어장으로 현지지도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범주별 현지지도 횡수의 변화를 관찰해 얻어진 이러한 결과들은 북한이 현지지도 전체의 실체를 상세히 공개하지 않는 가운데 공식적으로 보도한 것만을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이러한 결과들은 김정일 현지지도 특징의 일부분을 보여주는 것이지 결코 그 전체가 아니다. 이 점에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몇가지 특징들은 북한의 출판물에 산재되어 있는 김정일 현지지도의 구체적 내용에 의해 검증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된 1981년부터의 김정일 현지지도의 구체적 내역은 <부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전사 년표 Ⅱ』.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1.
- 김수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인민에 대한 사랑의 최고화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1.
-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2000.
- 김화·고봉. 『21세기 태양 김정일장군』. 평양: 평양출판사, 2000.
- 박형중.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24』.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
-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편.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대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 사회과학출판사. 『령도예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연합뉴스 편. 『북한연감 2002』. 서울: 연합뉴스, 2001.
-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일동지략전』.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각년도 판.
-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제588호』. 서울: 통일부, 2002.

한재만. 『김정일: 인간·사상·령도』. 평양: 평양출판사, 1994.

2. 논문

고지수. “최고지도자의 정책지도법 ‘현지도.’” 『민족 21』. 2001년 6월호.

김덕현. “인민군대는 조국과 인민의 보위자이며 사회주의건설의 적극적인 참가자이다.” 『근로자』. 1986년 11월호.

김상기. “김정일 경제부문 현지도 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01년 10월호.

김성오. “수령님의 고매한 공산주의적 품모와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작풍을 따라 배우자.” 『근로자』. 1974년 제11호.

김일성. “농촌경리에서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킬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평안남도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 결론 1963년 10월 18일. 『김일성저작집 1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김일성. “당사업과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과장이상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60년 10월 19일. 『김일성저작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김일성. “당사업에서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없애며 일군들을 혁명화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66년 10월 18일. 『김일성저작집 2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김일성. “사회주의건설에서 인민정권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최고

인민회의 제2기 제1차회의에서 한 연설 1957년 9월 20일. 『김일성저작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김일성. “성, 관리국의 지도를 개선하며 공장 당위원회의 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황해제철소 당위원회에서 한 연설 1962년 8월 30일. 『김일성저작집 1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김일성. “시, 군 인민위원회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시, 군 인민위원회 위원장 강습회에서 한 연설 1958년 8월 9일. 『김일성저작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김일성. “올해 농사경험과 다음해 영농사업방향에 대하여.” 농촌경리부문 지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80년 9월 21일. 『김일성저작집 3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김일성. “자주적인 새 사회 건설에서 인테리의 역할.” 조선통일지 지 베네수엘라위원회 위원장 일행과 한 담화 1980년 8월 14일. 『김일성저작집 3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1961년 9월 11일).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일성저작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 일본 <요미우리신문>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2년 1월 10일. 『김일성저작집 2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김재서. “경제건설은 강성대국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업.” 『경제연구』. 1999년 제2호.

김정일.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생산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 함경남도 및 검덕광산 지도일군들과 한 담화 1975년

- 7월 1일. 『김정일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 김정일.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9년 1월 1일.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김정일. “올해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혁명적 전환의 해로 되게 하자.” 전당 당일군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97년 1월 24일.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김정일. “인민군대를 강화하며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 기풍을 세울데 대하여.” 『김정일 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김정일.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84년 2월 16일. 『김정일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김정일. “자강도의 모범을 따라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자강도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하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1998년 1월 16~21일, 6월 1일, 10월 20일, 22일.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김정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학 교육을 강화할데 대하여.” 김일성종합대학창립 50돐에 즈음하여 대학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 1996년 10월 1일.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김학봉. “시범단위를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 『근로자』. 1986년 10월호.
- 류순찬.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자주시대의 가장 로숙하고 세련된

- 정치원로이시다.” 『철학연구』, 2000년 제1호.
- 리근모.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지도방법은 공산주의적 령도방법의 위대한 모범.” 『근로자』, 1978년 제4호.
- 리순철. “경제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기 위한 현명한 령도.” 『력사과학』, 2000년 제3호.
- 서동만. “김정일의 경제지도에 관한 연구: 북한의 공식 문헌을 중심으로.” 『통일경제』, 1997년 11월호.
- 유호열. “김일성 『현지도』 연구 : 1980-1990년대를 중심으로.” 『통일연구논총』, 제3권 1호(1994).
- 이기동. “김정일 현지도에 관한 계량분석.” 『신진연구자 연구논문(IV)』, 서울: 통일부, 2002.
- 장은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빛나는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령도.” 『력사과학』, 2000년 제1호.
- 정창현. “현지도.” 『통일경제』, 1997년 12월호.
- 편집국.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현지도방법을 따라 배우자.” 『근로자』, 1969년 제11호.
- 홍 민. “북한 현지도의 정치경제학적 기원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황재준. “북한의 현지도 연구 - 특성과 기능을 중심으로 -.” 서강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3. 기타

- 『내외통신 주간판』, 1006호
『로동신문』

『연합뉴스』

『월간조선』, 1997년 4월호

『조선일보』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평양방송』

<http://www.korean.dprkorea.com/>

부 록

『조선중앙년감』에 수록된 김정일의 현지도 내역

*단 2001년과 2002년의 내역은 『조선인포뱅크』 홈페이지 (<http://www.korean.dprkorea.com/>) 에서 발췌

*『조선중앙년감』에는 김정일의 현지도 날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로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이 현지도 내용을 소개하면서 몇월 몇일 보도했다고 기술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보도 날짜를 현지도 날짜로 간주하고 ()안에 이를 표시

*2002년은 10월 31일 현재

<1981년>

- 5.18~22 묘향산지구(국제친선전람관, 묘향산 문화유적 및 명승지)
*4.25~27 김일성이 묘향산지구를 현지도하면서 교시한 것을 관철하기 위한 과업 제시
- 8.16 완공단계의 빙상관, 청류관 건설사업
- 8.25 식량 및 농업 증산에 관한 비동맹국 및 기타 발전도상 나라들의 토론회 회의장인 인민문화궁전
- 9.18 완공단계의 인민대학습당 건설사업
- 11.30 완공된 빙상관, 청류관 시찰
- 12.21 모란봉경기장 개건 확장 공사 및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야외촬영거리 건설사업

<1982년>

- 2.16 완공단계의 모란봉경기장 개건 확장공사

<1983년>

- 4.20 남포갑문 건설사업
- 6.2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치대학
- 8.24 새로 단장한 옥류관
*6.2~12 중국 방문

<1984년>

- 3.31 전국 각지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전시한 경공업제품 관람
- 4. 1 새로 건설된 말린쌀밥공장, 창광거리 건설사업
- 4.11 남포갑문
- 4.18 신축한 함흥대극장
- 4.28 신축한 평양제1고등중학교
- 4.28 평양시내 상점
- 5.15~18 함북, 함남 인민경제 여러 부문(김책제철소, 5월 10일공장, 무산광산, 청진조선소, 청진화력발전소, 성진제강소, 5월24일수출품수산사업소, 룡성기계연합기업소)
- 6.21 대성산혁명렬사릉 개건 확장 공사장
- 6.21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수출품 전시장
- 6.27 평양시 건설사업
- 7.11 남포지구(남포조선소 등)
- 7.19 새로 건설중인 만수대의사당
- 8. 3 경공업제품전시장
- 10.22~24 평북, 평남공업부문(락원기계공장, 평북제련소, 121호공장)
- 11.20 창광거리에 새로 건설된 주택

<1985년>

- 7. 5 완공단계의 대성혁명렬사릉 개건 확장 공사장, 해방탑 개축 공사장
- 7. 7 새로 건설된 만경대물놀이장

- 7.12 전국의 공장, 기업소 생활필수품 직장들에서 생산·전시한 제품 관람
- 8. 6 완공된 평양고려호텔, 창광거리 제2단계 건설장

<1986년>

- 3. 4 새로 건설된 국제위성통신국, 애국렬사릉 건설장
- 3.11 함흥시내(룡성기계연합기업소, 흥남대성수출품가공사업소, 마전유원지 등)
- 4.20 중앙동물원
- 5.13 평양시 <8월3일인민소비품> 직매점, 평양시 건설사업
- 7. 4 전국3대혁명소조기술혁신전시회장
*84.9.24~26 진행된 3대혁명소조원대회 이후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 사업하고 있는 3대혁명소조원들이 노동자, 기술자들과의 창조적 협조 밑에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벌려 새로 연구 완성된 기술혁신안들과 발명품, 고안품들을 전시

<1987년>

- 1.19 인민무력부 혁명사적관
- 3.20 혁명연극 <딸에게서 온 편지> 창조사업
- 3.23 도예술선전대들과 영화예술인들의 예술선전사업
- 7.25 혁명연극 <3인1당> 창조사업
- 9. 7 평양시내(룡성식료공장, 윤순녀애국맥주공장, 경흥거리에 새로 건설한 봉사망; 불고기집, 결혼식장, 기념품매대, 농산물매대, 야외매대, 꽃방 등)
- 10.26 새로 건설중인 평양국제비행장 건설사업

<1988년>

- 3.31 완공된 평양국제문화회관
- 4. 5 체신 및 방송부문 사업
- 4. 9 자동차공업부문

- 4.13 자강도(새로 건설된 8호제강소, 강계시내 공장, 건설장)
- 6.24 신의주시 건설사업
- 7.5~6 함북 인민경제 여러 부문(경성도자기연합회사 등)
*관계부문 일군협의회 소집하여 수송사업 발전, 철
생산 증대, 인민생활 향상, 과학기술발전 등을
지시
- 8.19 무산광산연합기업소
- 8.30 새로 건설되어 부하시험단계에 들어선 상원시멘트
연합기업소
- 8.31 과학원 과학전시관
- 9. 4 증축된 옥류관
- 9. 6 정권창립 40주년 기념 공작기계전시관
- 10.29 문화예술부 사적관
- 10.29 경공업제품 전시장
- 12.19 민족가극 <춘향전> 창조사업

<1989년>

- 12.12 평양시 건설사업
- 12.12 경공업제품전시장

<1990년>

- 4. 6 평양시 청소년들과 함께 기념식수
- 6.16~17 량강도와 자강도내 여러 부문 사업(백두산지구 혁
명전적지, 남포태온실농장, 혜산-만포청년선 북부
철길)

<1991년>

- 10. 7 개업을 앞둔 광복백화점

<1992년>

- 2. 3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창조사업

- 2.26 준공단계의 애국천연색텔레비전조립공장
- 4. 4 <축원의 노래> 창조사업
- 4.13 <축원의 노래> 창조사업
- 4. 6 함북조선소년연합기업소에서 새로 건조한 화객선 <만경봉-92>호 시찰
- 5.22 군협주단 창작가, 예술인들 접견, 담화
- 6.13 준공된 군대병원 어은병원 시찰
- 10.8 군 제10차 미술전람회장

<1993년>

- 2.27 사로청 제8차대회 기념하여 청년중앙회관에서 개막된 교양자료전시회장
- 3.30 새로 건설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 8.19 로동신문사
*새로 꾸며진 신문편집공정을 돌아보고 편집일군들과 협의회

<1994년>

- 10.29 단군릉
- 11. 1 1단계 공사 완료한 청류다리

<1995년>

- 1. 1 제214부대
- 2. 5 제291부대 여성해안포중대
*관문방어 최전방부대, 김일성 72.3.21 현지도
- 2. 6 해군 제155부대
*김일성 해방직후 귀국할 때 탔던 <개선히> 승선
- 4.25 제1017부대
- 4.28 국가과학원(조종기계연구소, 집적회로중간시험공장 등)

- 6.15 해군 제853부대
*해군절
- 8.28 여성해안훈련(장거리해상기동훈련, 잠수훈련 등)
- 9.13 제893부대 민경초소
*최일선부대
- 10.5 창당 50주년 기념탑
- 10.9 청류다리, 금릉2동굴 개통식
- 10.12 평양-향산 관광도로 개통식

<1996년>

- 2.20 제963부대 여성중대
*음력설, 김일성 66.3.13 현지도
- 2.27 동부전선 351고지 지키는 부대
- 2.29 제436비행부대
- 3.16 경기용총탄공장
- 3.18 서부전선 대덕산 초소지키는 부대
*김일성이 김정일과 함께 63.2.6 현지도
- 3.20 중부전선 오성산 일대 및 제512부대의 혁명사적지
*김일성이 김정일과 함께 65.5.10 현지도
- 4. 2 4.25국방체육선수단
*김정일 94.11.20 현지도
- 4.18 룡문대굴
*평북 구장읍 룡문산에서 새로 발굴, 조성
- 4.25 서부전선 대연합부대 지휘부
*김일성이 김정일과 함께 63.2 현지도한 후 33차례 방문
- 6. 4 동해안 일대 방어부대
- 6. 5 함북 칠보산
- 6.10 1단계 건설공사 완공단계의 강원도 안변청년발전소
- 6.11 해군 제853부대
*해군절

- 6.24 평남 녕원발전소
- 6.24 제770부대 후방기지
- 9.15 조업개시 직전의 안변청년발전소
- 10.14 제963부대
 - *김일성 92.3.30 현지도
- 10.15 황남 구월산 휴양지 건설장
 - *군부대 건설장 방문
- 10.20 제765부대
 - *서해안 전방 초소, 김일성 63.5 현지도 이래 김일성 부자 수십차례 현지도
- 10.28 강원도 월비산발전소
 - *제512부대가 건설
- 11. 1 차광수비행군관학교
- 11. 2 함북 칠보산유원지
- 11.18 제185부대
- 11.23 해군 제154부대
- 11.23 해군 제792부대(서해안초도방어대)
- 11.24 판문점대표부
- 12. 1 류경수105탱크부대
- 12. 7 김일성종합대학
 - *창립 50주년
- 12. 8 강건종합군관학교
 - *김일성 80여차례, 김정일 60여차례 현지도
- 12.15 김일성정치대학
 - *김일성 40여차례, 김정일 20여차례 현지도
- 12.15 평양 강동정밀기계공장 노동자들이 건설한 주택마을
- 12.31 제938부대

<1997년>

- 1. 1 만경대혁명학원
- 3. 3 제212부대

- *서해안 최전방 방어부대, 교동도와 강화도가
3km 전방
- 3. 4 인민무력부 혁명사적관
- *군인들이 마련한 동식물 표본과 미술작품 관람
- 3.18 제834부대
- 4.15 동부전선 1211고지 방어부대, 지혜산 김일성사적
지
- 4.24 제969부대
- 4.27 만수대창작사, 모란봉극장
- 5. 1 황북의 정방산 및 황남의 구월산 유원지
- *주로 군인들이 건설
- 5. 5 TV방송사업
- 6. 5 김정숙해군대학, 해군 제597부대
- *해군절
- 6.10 서해안 최전방 일대 방어하는 대연합부대 지휘부
- 6.14 국립민족예술단
- 6.15 3대혁명전시관
- 6.23 제1106부대 섬방어대
- 6.29 제671부대
- 7.27 제821부대 여성방사포대대
- *전승절
- 9.10 김일성군사종합대학
- 9.15 제287부대 섬방어대
- 9.17 제966대연합부대 지휘부
- 9.23 군인들이 공사완료한 구월산 유원지
- 10.10 제564공군대연합부대 지휘부
- *창당 52주년, 김일성부자 수백차례 현지지도
- 10.21 군인들이 새로 건설한 량강도 송암명기소목장
- 11. 2 제233대연합부대 전방지휘소
- 11.10 동해안 최전방초소인 알섬방어대
- 11.27 제163부대 여성해안포중대(중앙통신 보도 날짜)
- 11.29 제264대연합부대 지휘부
- 11.30 김책공군대학

<1998년>

- 1. 1 제337부대
- 1. 2 만경대혁명학원
- 1.16~21 자강도 공업부문(강계시와 장강군, 성강군에 건설된 장강 1호·2호발전소, 장자산발전소, 북천3호발전소, 남리발전소, 외중발전소 등의 중·소형수력발전소, 강계트랙터연합기업소, 2월제강연합기업소, 2.8기계연합기업소, 강계정밀기계연합기업소 등)
- 1.26 제380부대(로동신문 보도 날짜)
- 1.28 제567대연합부대 전방지휘소(로동신문 보도 날짜)
- 2. 2 제443부대(로동신문 보도 날짜)
- 2. 4 제757대연합부대관하 장갑보병중대(로동신문 보도 날짜)
- 2. 8 전국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 출품 프로그램 관람
- 2.20 영화 <민족과 운명>의 노동계급편 창조 성원 접견, 담화
- 2.24 제224부대
*교동도와 강화도 2km 전방
- 2.24 제230부대
- 3. 3 백두산 형상 미술작품 지도(로동신문 보도 날짜)
*만수대창작사 창작가들과 종업원 치하
- 3.12 해군 제406부대(로동신문 보도 날짜)
- 3.13 제324대연합부대 관하 해안포중대(로동신문 보도 날짜)
*31년전 김정일 현지지도
- 3.14 함북 성진제강연합기업소(로동신문 보도 날짜)
- 4.15 제313대연합부대
*김일성 생일

- 4.25 제604부대
*건군절
- 5. 3 제757부대 지휘부
- 5. 4 제937부대
- 5. 4 제681부대 관하 포병중대
*후방공급사업에서 모범
- 5.10 김철주포병종합군관학교
- 5.12 남포 정제소금공장(로동신문 보도 날짜)
*서해 광량만에 군이 건설, 군에 소금 공급
- 5.13 제860비행부대(로동신문 보도 날짜)
- 5.22 최일선부대인 제171부대
- 5.31 제845부대
- 6. 1 자강도 희천시내 공장, 기업소(청년전기연합기업소, 계산기연구소, 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 2월26일공장 등)
- 6. 2 새로 확장한 국제친선전람관
- 6. 7 제622부대 전방지휘소
- 6. 8 평남의 1월18일기계종합공장, 청천강기계공장
- 6. 9 군표준병영(로동신문 보도 날짜)
*제462부대가 건설, 이 부대는 서해감문, 정제소금공장건설에 참여
- 6.22 제324부대 관하 포중대(로동신문 보도 날짜)
*포병절
- 7.26 제671부대
- 8. 3 제549대연합부대
- 9.19 새로 단장한 애국렬사릉
*공화국창건 50주년
- 10. 1 량강도 대흥단군(농업과학연구원 감자연구소, 대흥단2호발전소, 대흥단5호발전소 등)
- 10. 6 김일성군사종합대학, 미림비행장, 4.25여관
*대학에 김일성 동상 건립, 미림공군비행장에 김일성사적비 건립, 여관은 새로 건설

- 10.20 자강도 희천시내 공장, 기업소(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 청년전기연합기업소, 2월26일공장, 희천제사공장, 희천여관 등)
- 10.22 자강도 만포시(고산진혁명사적지, 압록강타이어공장, 운화공장 등)
- 10.25 제465부대
*〈오중흡7연대〉 칭호 수여 받음.
- 11. 2 제593대연합부대 지휘부
- 11. 9 제1202부대 섬방어대
- 11.10 제549대연합부대
- 11.17 김형권통신병군관학교(로동신문 보도 날짜)
- 11.18 함북 경성군 일대(약전기계공장, 경성군 온포3호·4호발전소, 경성군 상온포협동농장, 룡현협동농장, 칠보산유원지 등, 로동신문 보도 날짜)
- 11.18 제3421여성부대(로동신문 보도 날짜)
- 11.22 새로 단장한 황남 신천박물관
- 12.17 평남 승리자동차종합공장, 덕성기계공장
- 12.19 제570대연합부대 지휘부(로동신문 보도 날짜)
- 12.24 제969부대 여성고사포중대

<1999년>

- 1.11 국가과학원(전자연구소, 수학연구소 등)
- 1.19 평북 태천수력발전종합기업소, 2호발전소(로동신문 보도 날짜)
- 1.20 최현군관학교(로동신문 보도 날짜)
- 2. 9 제615부대 관하 포항 16영웅중대(로동신문 보도 날짜)
- 2.10 강원도 토지정리사업(철원군, 고산군, 평강군 등, 로동신문 보도 날짜)
- 2.16 제991부대 관하 2중 3대혁명붉은기 여성고사총중대
- 2.16 제682부대 동기훈련

- 3. 7 과학원 함흥분원(과학성과전시관 등)
*도, 시, 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 참가. 화학공업 발전 촉구
- 3.11 강원도 토지정리사업(안변군 풍화협동농장 등)
- 3.13 동부전선 지혜산 일대 방어부대 관하 여성고사총 중대(로동신문 보도 날짜)
- 3.13 제720부대(로동신문 보도 날짜)
- 3.29 제324대연합부대 지휘부(로동신문 보도 날짜)
- 3.30 함남, 함북 공업부문(신흥기계공장, 단천마그네사 종합공장, 단천항 건설장, 함북조선소연합기업소, 6월5일전기종합공장 등, 로동신문 보도 날짜)
*공장, 기업소 일군 협의회 소집하여 금속공업발전 문제 협의, 철강재 생산, 기계제작공업 발전 독려
- 4. 5 제567대연합부대 지휘부(군사연구실, 종합훈련 참관)
- 4.15 개풍군일대 방어부대
*김일성 생일
- 4.25 제690부대와 제946부대 훈련 참관
*건군절
- 4.25 제963부대 관하 구분대
*건군절
- 4.28 새로 확장한 량강도 송암명기소목장(로동신문 보도 날짜)
- 5. 5 제287부대 전방지휘소(로동신문 보도 날짜)
- 5. 6 조선인민경비대 제1216부대 양어장(로동신문 보도 날짜)
- 5. 7 강원도 농촌기계화사업(통천군 구읍협동농장, 로동신문 보도 날짜)
- 5.11 제959고사포부대(로동신문 보도 날짜)
- 5.18 탱크자동차병군관학교(로동신문 보도 날짜)
- 5.28 김책제4보병사단 관하 포중대
- 5.31 제833부대

- 6.17 자강도 여러 부문(항하혁명사적지, 장자강발전소, 강계청년발전소, 장강3호군민청년발전소, 북천2호 발전소, 압록강타이어공장, 강계트랙터연합기업소, 만포시 고산협동농장, 장강군 읍협동농장, 만포고 치농장, 로동신문 보도 날짜)
- 6.28 강원도 안변군 풍화협동농장, 천삼협동농장(로동신문 보도 날짜)
- 6.29 제409부대(로동신문 보도 날짜)
- 7.13 평북 토지정리사업(룡천군 등)
- 7.28 해군 제155부대(로동신문 보도 날짜)
*조국해방전쟁 승리 46주년
- 8.12 량강도 대홍단군종합농장, 삼지연군 무봉노동자구(대홍단군종합농장 홍암분장, 농업과학원 감자연구소, 무봉청년발전소, 무봉목욕탕, 로동신문 보도 날짜)
- 8.19 라효진이 지배인인 양어사업소 양어장
- 8.23 새로 건설한 평양 가금목장(로동신문 보도 날짜)
- 8.30 제635부대
*〈오중흡7연대〉 칭호 수여 받음.
- 9. 1 개건 확장한 차주현이 지배인인 양어사업소 양어장(로동신문 보도 날짜)
- 9. 8 제963부대
*공화국 창건 51주년
- 9.12~14 자강도 여러부문(랑림혁명사적관, 연풍혁명사적관, 장자강공작기계공장, 9월방직공장, 강계포도술공장, 강계피복공장, 강계기와공장, 화평군 부남청년발전소, 도 안전국 발전소, 강계애국복합미생물비료공장, 장강군 읍협동농장, 량림군 읍협동농장, 잠업원종장, 강계시 사업관리소 빵밭 등)
- 9.22~24 함남 공업부문(신흥기계공장, 6월1일청년전기기구종합공장,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성천강22호발전소, 함흥 성천강피복공장, 신흥양어장, 신흥유원지 등)

- 10. 6 제507부대
- 10. 7 군부대의 발전소건설사업(제757부대 건설 10월5일발전소, 제549대연합부대 발전소건설사업, 로동신문 보도 날짜)
- 10.12 제1130부대 섬방어대
- 10.14 함남 금야만에 새로 건설된 광명성제염소(로동신문 보도 날짜)
- 10.17 제1224부대
- 10.28 창당 54주년에 즈음하여 확장된 업을용이 지배인인 식료공장
- 11.18 제715부대 관하 보병중대(로동신문 보도 날짜)
- 11.29 제775부대
- 12. 5 제583부대 건설 양어장
- 12. 6 제776부대
- 12.12 황남 룡연군 종합농장 룡정분장(신축한 양어장, 농촌문화주택 등)
- 12.23 제488부대

<2000년>

- 1.24 평북 토지정리사업(태천군, 녕변군 등)
- 1.26 제1158부대(로동신문 보도 날짜)
- 1.25~28 평북 공업부문(락원기계공장, 구성공작기계공장, 12월5일청년광산, 량책베어링공장, 신의주신발공장, 신의주방직공장 등)
- 1.31 제667부대(로동신문 보도 날짜)
- 2.12 제440부대 관하 여성해안포중대(로동신문 보도 날짜)
- 2.12 새로 개건한 무지개동굴(로동신문 보도 날짜)
- 2.18 제894부대
- 3.27 량강도 대홍단군종합농장(대홍단1호발전소, 신흥분장, 서두분장의 제대군인 마을, 로동신문 보도 날짜)
- 3.28 제380부대가 건설한 발전소(로동신문 보도 날짜)

- 3.29 량강도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로동신문 보도 날짜)
- 4. 2 자동화대학
*군사과학기술 개발 강조
- 4. 9 제1311부대, 제3995부대 관하 중대
- 4.15 해군사령부
*김일성 생일
- 4.25 제1321부대
*건군절
- 5. 9 군대가 새로 건설한 메기공장
- 5.16 평북 북중기계연합기업소
*선박공업 발전 강조
- 5.19 평북 토지정리사업(의주군 홍남협동농장, 곡산군 초장협동농장, 정주시 신천협동농장 등, 로동신문 보도 날짜)
- 6.21 평북 녕변견직공장, 박천견직공장
- 7. 4 제3971부대
- 7. 5 제324부대, 6월20일발전소
- 8.1~2 함북 공업부문(김책제철소, 3월17일발전소, 새로 건설한 중·소형발전소, 어랑군에 건설중인 제염소, 청진양어장 등)
- 8.26~27 함남 경제 부문(성천강 29·30·32호발전소, 6월4일공장, 함주군 동봉협동농장 등)
- 8.28 함남 원산갈마휴양소(로동신문 보도 날짜)
- 8.28~31 자강도 여러 부문(강계정밀기계연합기업소, 강계 견방직공장, 홍주청년발전소, 성간임산사업소, 장강군 장평협동농장, 무덕협동농장, 성강군 성하잡업전문협동농장, 성간군 성간고등중학교 등)
- 9.20 새로 건설한 메기공장
- 9.30 현대아산이 개발중인 강원도 금강산관광지구
- 10.18 군대가 새로 건설한 메기공장
- 10.31 김일성경기장
*예술인체육대회 30주년

- 11. 2 군대가 새로 건설한 112호닭공장
- 11. 7 강원도 경제부문(조업한 안변청년발전소, 제549부대가 건설한 내평발전소, 제549부대 부업농장 등)
- 11.13 평양-남포간 새로 건설된 청년영웅도로
- 11.13 황북 황주 닭공장
- 11.22 제833부대
*〈오중흡7연대〉 칭호 수여받음.
- 11.26 량강도 경제부문(대홍단군종합농장, 대홍단4호청년발전소, 삼지연군 포태종합농장, 포태3호발전소 등)
- 11.30 함남 건설장, 농장(금진강발전소 언제 건설장, 함흥시 원료기지농장 등)
- 12. 5 제350부대
- 12. 5 황남 토지정리사업
- 12. 7 평양 여러 부문(새로 건설한 즉석국수공장, 위생자재공장, 수원지, 타조목장 등)
- 12.18 황남 토지정리사업(연안군, 청단군 등)
- 12.19 군대가 새로 건설한 약품연구소, 주사기공장
- 12.24 제2752부대
*〈오중흡7연대〉 칭호 수여받음.
- 12.27 제395부대

<2001년>

- 1. 1 제932부대
- 2. 7 제655부대
- 2.14 평북 구성공작기계공장, 태천발전소
- 4.11 함흥시내 공장, 기업소(룡성기계연합기업소 등)
- 4.15 제2629부대
*〈오중흡7연대〉 칭호수여 받음. 김일성 생일
- 4.16 제3427부대 포대대
- 4.30 황남 토지정리사업(안악군, 삼천군 등)
- 5. 7 제415부대, 제567부대 건설 임진강제1호발전소

- 5. 8 제688부대
- 5.20 해군 제256부대
- 6.15 해군 제597부대
- 6.15 제288비행부대
- 6.21 제983부대, 제567대연합부대가 건설한 메기공장
- 6.25 제1보병사단
*〈오중흡7연대〉 칭호 수여받음.
- 7. 7 황남 토지정리사업(태탄군 류정협동농장, 재령군 재전협동농장 등)
- 7. 8 평양 인민소비품공장(담배연합회사, 경련애국사이다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등)
- 7.11 새로 건설한 황북 범안양어장, 범안발전소, 범안협동농장의 문화주택마을
- 8.19 함북 제696부대
*러시아 방문 귀국길
- 8.19 함북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
- 8.26 강원도 룡포혁명사적지, 울림폭포
*룡포혁명사적지는 김일성이 51.4 이곳에 와 동해안방어작전계획 수립, 울림폭포는 군인들이 새로 발굴
- 8.28 강원도 원산갈마휴양소, 제2796부대 관하 초소
*갈마휴양소는 비행사용, 부대는 최전선에 위치
- 9. 5 평양시 력포구역 야음리에 군대가 새로 건설한 9월27일 닭공장
- 9.11 제821부대, 제368부대, 제757부대의 염소목장, 토끼목장
*4월에도 제757부대의 염소목장 시찰
- 9.14~15 함남 경제부문(7월6일철도공장, 라홍콘크리트침목공장, 성천강 23호·24호·25호·26호·27호 발전소, 영광청년양어장, 신흥군 중평협동농장 등)
- 9.16 제194부대(중앙통신 보도 날짜)
- 9.18 제535부대 관하 구분대, 제211부대
*제211부대는 〈오중흡7연대〉 칭호 수여받음.

- 9.19 김책공업종합대학
- 9.20 인민보안성 군견훈련소
- 9.21 인민문화궁전
*중앙문화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의 시범문답
식학습경연 참관(경연에서는 조선예술영화촬영
소, 피바다가극단, 국립연극단의 학습반들이 선
군정치와 관련된 문제들을 가지고 결승경연을 진
행)
- 9.23 제534부대 메기공장, 황남 과일군, 북창농장, 풍
천과일 가공공장
*메기공장은 5월에도 방문
- 11.4 함북 무산광산연합기업소
- 11.7 함북 칠보산유원지
- 11.9 조국 관문을 수호하는 제165부대
- 11.10 112호닭공장
- 11.12 제397부대
*〈오중홉7연대〉 칭호 수여받음.
- 12.4~16 평북 공업부문(북중기계연합기업소, 수풍발전소,
구성방직공장, 신의주화장품공장, 평안북도닭공장
등)
- 12.21 제529부대
- 12.22 제2833부대
- 12.24 자강도 경제부문(8월제강소, 홍주청년발전소, 강
계포도술공장, 강계편직공장, 강계닭공장, 강계고
려약공장 등)
- 12.27 제646부대
- 12.27 제564대연합부대가 건설한 1227호발전소

<2002년>

- 1. 5 김중태전기기관차공장
- 1. 6 제942부대
- 2. 1 제1200부대
- 2. 2 제179부대, 제779부대

- 2.23 량강도 대홍단감자가공공장
- 3. 1 제891부대
- 3.11 제319부대 군사훈련 참관, 311호닭공장
*군인들이 새로 건설한 311호닭공장을 돌아보고
공장관리운영에서의 구체적 과업 제시
- 3.13 제639부대
- 4. 3 공군사령부 산하 서해지구 항공구락부
- 4.10 인민무력부 선물관(중앙통신 보도 날짜)
*군인들이 창작한 조선화, 유화, 보석화, 조각, 공
예품 등 미술작품 전시
- 4.11 제834부대
- 4.26 5월1일경기장
*집단체조 <아리랑> 관람
- 5. 1 해군사령부
- 5.19 제858비행부대(중앙통신 보도 날짜)
- 5.20 새로 건설된 평북 태천3호청년발전소(중앙통신 보
도 날짜)
*평북내 청년들이 3년동안 건설
- 5.20 평북 구성공작기계공장, 구성닭공장(중앙통신 보
도 날짜)
- 6. 1 제823부대
- 6. 4 함남 고원군 락천리의 량천사(중앙통신 보도 날
짜)
*753년에 건축된 량천사는 그 규모와 력사에서
손꼽히는 절의 하나. 역사문화유적관리에서의
지침을 하달
- 6. 4 량강도 혜산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사적지
*72년 5월말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사적지를
현지도한 이래 지금까지 16차례 현지도
- 6.4~5 함남 단천지구 광산, 북청군내 협동농장(검덕광
산, 룡양광산, 대홍청년광산, 북청군 룡천리 문화
협동농장, 청흥리 청흥협동농장, 송전혁명사적지
등)
- 6. 6 제156부대

- 6. 7 함흥 룡성기계연합기업소, 과학원 함흥분원
- 6.15 제478부대
*김일성과 김정일은 60.8.25 이 곳을 찾아 붉은
기증대 운동의 첫 봉화를 지킴.
- 6.16 평남 안주닭공장(중앙통신 보도 날짜)
- 6.17 평양 대동강맥주공장, 평양일용품공장 치솔직장
- 6.17 제534부대 산하 농장, 묘목장
- 7. 6 제744부대(중앙통신 보도 날짜)
*〈오중흡7연대〉 칭호 수여받음.
- 7. 7 고사포병군관학교(중앙통신 보도 날짜)
- 7.18 새로 건설한 평북 구성시 남산협동농장 종합축산
분장
- 7.19 평북 삭주식료공장
- 7.26 자강도 희천시내 공장, 기업소(청년전기연합기업
소, 희천공장기계공장, 7월26일공장, 희천일용품
생산협동조합 등)
- 8.24 조·로친선각
*새로 조성, 8월24일까지 러시아원동지역을 방
문
- 10.1 제534군부대 산하 농장
*6월에도 방문
- 10.7 량강도 삼지연군 건설장(새로 건설된 백두관, 천
지원, 여관, 주택 등)
- 10.8 량강도 대흥단군(무산지구 전투승리기념탑, 홍암
농장, 창평농장, 감자연구소 등)
- 10.8 량강도 삼지연군 무봉노동자구(새로 건설된 유치
원, 주택, 무봉중학교 등)
- 10.15 제368부대 관하 포병중대, 염소목장
- 10.16 강원도 안변청년2호발전소, 박인철이 지배인인 양
어장
- 10.17 함남 공장, 기업소(금진강발전소, 부업목장, 흥봉
발전소 언제 건설장, 6월1일청년전기기구공장, 함
흥기초식품공장 등)

- 10.18 제836부대 건설 발전소, 관하 여성중대
- 10.21 6월4일차량공장, 금강원동기공장
- 10.22 중부전선의 제507부대, 부대 건설 발전소, 관하 포병중대
- 10.22 제549부대 부업농장
- 10.24 평북 락원기계연합기업소
- 10.24 평북 리영남이 지배인인 기업소 부업농장
- 10.25 평북 창성군(창골혁명사적지, 창성군 문화회관, 창성식료공장, 직물공장, 종이공장, 금야2호발전소, 옥포협동농장종합축산기지 등)